

2012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발간사

이 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발간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제안에 초점을 둔 정책제안보고서입니다. 모든 고유연구과제들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연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적·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및 검증절차를 도입하여 최대한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고객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발굴 단계부터 정책고객 참여를 확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거쳤으며, 연구계획서발표회와 중간보고서 발표회, 최종 보고서 정책협의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고객이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는 이러한 올해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홍보하고, 또 공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서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정책제안보고서에 수록된 연구들은 활동·역량, 보호·복지, 통계·기초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아동·청소년정책이 각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본원에서 수행한 고유연구과제의 연구성과와 정책제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본 정책제안보고서를 보신 후,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원이 더 좋은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학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 좌측하단에 '연구과제 제안'을 받는 공개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가 있으시면 적극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볼 수 있으며, 정부간행물판매센터(02-394-0337)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직접 해당 연구진에게 해주시고, 보고서 구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정보자료·전산보안팀(02-2188-8852, sooji@nypi.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 임직원은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활발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해 청소년계 여러분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한결같이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목 차

활동·역량 분야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3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 김현철 13
-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조혜영 18
-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24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 윤철경 31
-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II • 김영한 37

보호·복지 분야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45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혜연 49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56
-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 I: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63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협동) • 최인재 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협동) • 백혜정 79

통계·기초 분야

-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87
-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안선영 93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 임희진 99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Ⅲ • 이경상 106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I (협동) • 이종원 112

부 록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12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151

활동·역량 분야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 김현철	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 조혜영	18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24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 윤철경	3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 김영한	37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39-2(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의 거점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가능하게 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음.
- 본 평가모형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리라 기대함.

❖ 주요결과

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설계

- 본 연구의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기본 틀 시안에서 대영역의 구획은 시설운영 매뉴얼에서 중요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운영계획, 청소년 이용, 활동 프로그램, 조직 및 시설, 대외협력, 안전 및 발전노력의 총 6대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중영역의 구획에 있어서는 운영계획 영역에 목표수립 및 계획, 청소년 이용 영역에 청소년 이용률, 청소년 참여, 청소년 동아리로 구분하였음. 활동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평가로 구분하였고, 조직 및 시설 영역에서는 조직 및 예산, 종사자, 근무 안정성, 시설 활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외협력 영역은 별도의 중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고 안전 및 발전노력 영역에서는 안전 및 위생,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였음.

- 이와 같은 평가 기본 틀의 구체화는 평가 콘텐츠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절차적 맥락, 그리고 실제 평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평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음.

2)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타당성 및 가중치 분석결과

-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임.

중영역	타당성 점수	순위	평가지표	타당성 점수	순위
목표수립 및 계획	4.16	5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3.72	2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3.89	15
청소년 이용률	4.13	6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95	8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65	27
청소년 참여	4.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4.06	3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3.89	15
청소년 동아리	4.03	9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3.90	13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3.38	30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3.72	25
프로그램 운영계획	4.17	4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3.95	9
프로그램 운영	4.20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3.78	20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3.34	31
프로그램 평가	4.04	8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3.63	29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3.73	23
조직 및 예산	3.88	13	시설운영 관련 규정	3.92	12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3.63	28
종사자	3.96	12	운영책임자의 적절성	3.96	7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4.05	4
			직원의 자격증 수	3.75	21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3.73	23
근무 안정성	4.05	7	직원의 근속연수	3.74	22
			직원의 복지수준	3.84	18
시설 활용	4.00	11	연간 시설 운영률	3.90	14
			법적 시설기준 준수	4.04	6
대외협력	3.85	14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3.87	17
			대외홍보 노력	3.84	18
안전 및 위생	4.17	3	안전 관리수준	4.10	2
			안전관리보험 가입	4.21	1
			위생설비 관리수준	4.04	5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4.03	9	운영발전 노력정도	3.92	10
			종합평가	3.92	10

-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용이성 분석결과임

중영역	평가지표	용이성점수	순위
목표수립 및 계획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	3.07	31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	3.29	30
청소년 이용률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78	9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3.65	18
청소년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3.77	11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	3.39	28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	3.68	15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3.53	24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	3.59	20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	3.53	24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	3.77	11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	3.64	19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3.36	29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	3.44	27
조직 및 예산	시설운영 관련 규정	3.75	13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	3.66	16
종사자	운영책임자의 적절성	3.71	14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3.96	2
	직원의 자격증 수	3.89	5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	3.79	8
근무 안정성	직원의 근속연수	3.78	10
	직원의 복지수준	3.53	23
시설 활용	연간 시설 운영률	3.93	3
	법적 시설기준 준수	3.91	4
대외협력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3.66	16
	대외홍보 노력	3.58	21
안전 및 위생	안전 관리수준	3.87	6
	안전관리보험 가입	4.15	1
	위생설비 관리수준	3.82	7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운영발전 노력정도	3.51	26
	종합평가	3.54	22

-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 대영역, 평가 중영역,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분석결과임.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순위
운영계획 (0.13)	목표수립 및 계획 (0.13)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0.47)	0.010	29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0.53)	0.011	28
청소년 이용 (0.23)	청소년 이용률 (0.28)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0.66)	0.057	4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0.34)	0.030	16
	청소년 참여 (0.42)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0.56)	0.071	2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0.44)	0.056	5
	청소년 동아리 (0.30)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0.33)	0.030	15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0.23)	0.021	20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0.44)		0.041	10	
활동 프로그램 (0.24)	프로그램 운영계획 (0.31)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0.31)	0.030	14
	프로그램 운영 (0.4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0.74)	0.100	1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0.26)	0.035	13
	프로그램 평가 (0.28)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0.51)	0.047	6
프로그램 평가결과 반영(0.49)		0.045	7	
조직 및 시설 (0.14)	조직 및 예산 (0.21)	시설운영 관련 규정(0.47)	0.020	22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0.53)	0.021	19
	종사자 (0.29)	운영책임자의 적절성(0.26)	0.015	25
		청소년지도사 배치율(0.36)	0.020	21
		직원의 자격증 수(0.16)	0.009	30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0.22)	0.012	26
	근무 안정성 (0.33)	직원의 근속연수(0.35)	0.023	18
		직원의 복지수준(0.65)	0.042	9
시설 활용 (0.17)	연간 시설 운영률(0.54)	0.019	23	
	법적 시설기준 준수(0.46)	0.015	24	
대외협력 (0.11)	대외협력 (0.11)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0.64)	0.011	27
		대외홍보 노력(0.36)	0.006	31
안전 및 발전노력 (0.15)	안전 및 위생 (0.53)	안전 관리수준(0.34)	0.037	11
		안전관리보험 가입(0.41)	0.044	8
		위생설비 관리수준(0.25)	0.027	17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0.47)	운영발전 노력정도(0.62)	0.059	3
종합평가(0.38)		0.036	12	

3) 청소년문화의집 최종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다음은 평가모형 타당성 분석결과 및 시범적용 결과를 통해 수정·보완된 청소년문화의집의 최종 평가영역과 평가지표, 그리고 최종 배점을 보여주고 있음.

대영역	중영역 (% , 점수)	평가지표 (%)	배점 (100점)
1. 운영계획 (5.0)	1) 목표수립 및 계획 (100.0 / 5.0)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50.0)	2.5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50.0)	2.5
2. 청소년 이용 (30.0)	1) 청소년 이용률 (40.0/ 12.0)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60.0)	7.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40.0)	4.8
	2) 청소년 참여 (30.0 / 9.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60.0)	5.6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40.0)	3.4
	3) 청소년동아리 (30.0 / 9.0)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20.0)	1.8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40.0)	3.6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40.0)		3.6	
3. 활동 프로그램 (20.0)	1)프로그램 운영계획 (20.0 / 4.0)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100.0)	4.0
	2)프로그램 운영 (60.0 / 12.0)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수(60.0)	7.2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40.0)	4.8
3) 프로그램 평가 (20.0 / 4.0)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및 반영(100.0)	4.0	
4. 조직 및 대외협력 (10.0)	1) 조직 및 예산 (50.0 / 5.0)	시설운영 관련 규정(60.0)	3.0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40.0)	2.0
	2) 대외협력 (50.0 / 5.0)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60.0)	3.0
대외홍보 노력 (40.0)		2.0	
5. 종사자 및 시설 (25.0)	1) 종사자 (40.0 / 10.0)	운영대표자의 적절성(30.0)	3.0
		청소년지도사 배치율(20.0)	2.0
		직원의 자격증 수(20.0)	2.0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30.0)	3.0
	2) 근무 안정성 (20.0 / 5.0)	직원의 근속일수(40.0)	2.0
		직원의 복지수준(60.0)	3.0
3) 시설 활용 및 안전·위생관리 (40.0 / 10.0)	연간 시설 운영률(30.0)	3.0	
	안전 관리 수준(40.0)	4.0	
	위생설비 관리 수준(30.0)	3.0	
6.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	1)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0)	운영발전 노력정도(50.0)	5.0
		종합평가(50.0)	5.0

정책제안 1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역할과 기능조정

❖ 제안 내용

- 지역사회의 범위가 개념적 정의나 적용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즉 가정, 학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삶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임.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지역사회 자체가 청소년문화의집의 배경이고 본래의 속성이라고 보아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밀착형 시설로서의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 이용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율활동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전문 시설로서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 핵심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활동이 되어야 함. 지도자 또는 전문가 주도에 의한 단순 체험형, 강좌-강습-견학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 조직 또는 청소년의 제안, 기획, 운영과정의 참여를 통한 자율 활동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임.
- 청소년문화의집의 지역연계 기능은 기관과의 공동사업과 같은 기관중심 연계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인적연계를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함께 청소년들이 지역의 다른 자원과 연계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지역사회의 일반 청소년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요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일반적인 시도 단위에서의 연계망 구축, 기관 대 기관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수요자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소년 개인의 요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적합한 기관이나 인적자원에 접근하는 것임.
- 청소년 활동시설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은 청소년 문화중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임. 시설 공간 설계 시 청소년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성격이 다른 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함. 청소년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간에 다른 특성을 가진 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윈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본래의 활동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청소년문화의집의 서비스 전문성은 청소년 자율이용-전용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이를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밀착형 기관으로서의 장점과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안 2

생활권수련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 제안 내용

- 서비스연계를 뛰어넘어 위기청소년들에게 위기를 완충시킬 수 있는 사람과의 연계가 필요함. 위기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안전망이 시급함. 이 안전망은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위기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이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와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한 공간에 여러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계층 간 통합교육이 필요하며, 통합교육의 장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야 함.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이들이 계층 간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그 활동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은 갈등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갈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잃어버렸던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될 것임.
-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계권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안전한 거처의 제공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일 것임.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와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취해지지 않는다면 위기청소년들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위기와 맞설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없을 것임.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듬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간 계층간 통합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일상적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청소년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시설평가의 역할과 기능

❖ 제안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는 2007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평가방법의 다양성, 평가절차의 체계성, 평가지표에 대한 세분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음. 본 연구를 포함해 향후 청소년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시설평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함.
- 평가주체의 문제인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사업주체가 자주 바뀌다보니 평가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하여 매년 평가지표 개발 시 유사한 개발절차를 중복하여 거치고 이전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평가사업 수행기관을 장기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과거 2007년도와 2010년도 2회에 걸친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근거로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5일제 수업 환경에 적합한 청소년문화의집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야 함. 이는 이전의 청소년정보문화공간 모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모형도를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게 개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새로운 청소년문화의집 개념의 정립을 근거로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를 단순히 상호간 비교하는 상대평가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의 목적, 기능,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평가결과에 의해 최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한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제제보다는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와 예산지원을 동반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정책제안 4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에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제고

❖ 제안 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국가가 해야 할 일인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인지 정확한 선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수련시설 평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져야 함.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평가수행에 대한 역할도 정리되어야 함.
- 공공시설 평가와 민간시설 평가에 대한 목적과 방법, 인센티브 및 페널티부여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구분 틀이 마련되어야 함.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평가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평가결과에 대한 환원과 개선은 일어나지 않게 됨.
- 지방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대한 방안이 현재 전무한 실태임. 민간시설의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지자체가 할 수 있으나, 공공시설 운영상 기본적인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군구로 법적 이양되어 있는 공공시설 관리에 대하여 일정부분 시도의 기본적 책무로 강화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 강화와 다원화가 필요함.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이후, 예산 부족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우수 청소년문화의집 기관표창 및 동판부착 이외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았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평가의 목적이 설립시의 법적 취지와 역할의 달성여부, 그리고 시설운영발전에 있다고 한다면, 시설관계자의 국·내외 다양한 연수기회부여(최우수 시설 전원 해외연수기회부여), 격려금 지급(1억 원 내외), 시설 리모델링 우선지원(5억 원 이내), 담당 공무원 장관표창 및 해외연수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와 우수한 평가결과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1) 전문 인력 선발 및 배치(최소한 청소년문화의집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전문가 배치가 필요함) 2) 시설환경의 개선 및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여건 조성 3) 지역 특화된 우수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등임.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가 환경조성 및 운영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지자체별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중심의 평가가 아닌, 활성화 차원에서의 전문가 컨설팅 사업 추진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시설평가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요소에 있어서 가장 큰 중점사항은 바로 지역의 청소년을 고려하는 것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을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하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음. 아무리 시설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지역 주민의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시설은 의미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의 활용과 이용의 친숙성은 시설운영의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이 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시설발전의 지원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밀착시설로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1-5(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주요결과

1) 시범사업 참여 코디네이터기관 및 시범학교 설문조사 결과

- 코디네이터기관과 시범학교 담당자 모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운영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코디네이터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이 실무자에게 다른 사업보다 더 힘들다는 의견이 63.8%로 조사되었고, 시범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30%를 상회하였음.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 비중이 48%로 높게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모형에 대해 깊은 기대감을 드러냈음.
- 시범학교 담당 교사의 90% 이상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2) 전국 초·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대상 조사 결과

-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재량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78.2%에 달해, 최근 들어 체험활동을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체험활동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수요는 무척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 체험활동 전문기관이 체험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2.7%,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인력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5%로 파악되었음.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고, 업무부담 경감이 24.8%,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1%로 그 뒤를 이었음.

3)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

-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학교급 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음.
-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수를 산출한 결과 75점 만점에 초등학생 56.47점, 중학생 48.77점, 일반계고등학생 47.15점, 특성화고등학생 45.19점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4) 학교와의 네트워크 사례

-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선 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열정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밖에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체험활동 운영기법,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5)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 지역사회기관(특히, 청소년기관)은 그간에 프로그램 제공자 중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점차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로

전환해 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역할전환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됨.

6) 청소년 주도형 지역사회 참여 사례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국내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 체험활동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크며, 동시에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큼.

정책제안 1

교과부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여가부 코디네이터 기관간 협력강화

❖ 제안 내용

-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의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

❖ 기대 효과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효과
- 부처간에 윈윈할 수 있는 모델 개발

정책제안 2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정비 기회마련

❖ 제안 내용

-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에서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달체계가 제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기대 효과

- 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 강화

정책제안 3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개선

❖ 제안 내용

-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반영하여야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텐츠 제공
-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지도사의 위상 변화

정책제안 4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지도 역량 강화

❖ 제안 내용

-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참여를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기대 효과

- 새로운 청소년지도인력 양성의 방향성 제시

정책제안 5

사업중심이 아닌 네트워크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 추진 필요

❖ 제안 내용

-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중앙부처의 예산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님.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감과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관이 사업중심이 아닌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정책제안 6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및 대상별 특화활동 프로그램 강화

❖ 제안 내용

-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활동, 예를 들어, '트라이앵글 모형의 체험활동'이나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진로활동과 연계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체험활동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를 강화해야 함.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체험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제고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조혜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2-2(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 연령인 9세부터 24세 중 그간 정책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1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후기청소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 및 의식 실태 중 현안 문제를 반영하는 사안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며,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함.

❖ 주요결과

1) 주요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이들을 둘러싼 5가지(주거실태, 등록금,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준비, 소비 및 여가활동)의 현안 이슈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이들의 정체성, 사회적 위치 등에 대한 인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음.

2) 경제적 비용 부담 관련

-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을 위한 모든 경제적 비용(등록금, 생활비 및 용돈, 취업준비비용 등)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가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공사적 고등교육 비용이 교육 수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의미함.

3) 주거 관련

-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은 전체의 36.1%이고 이들의 52.3%는 기숙사, 33.1%는 월세 자취를 하고 있으며, 월세자취자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평균 30.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주거형태가 월세자취인 학생들은 평균보다 상회하는 월평균 40.3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 학교 학생들에 비해 2배 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

4) 등록금 관련

- 등록금 부담 실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한 학기 등록금 총액은 평균 323.1만원이고, 장학금은 평균 51.2만원으로 등록금 총액대비 17%수준임. 82.7%의 학생이 부모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7.1%의 학생들은 등록금으로 부채를 지고 있고, 이들 중 81.7%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등록금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5) 재학 중 근로 실태 관련

-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의 주된 목적은 생활비 및 용돈 충당(85.7%)에 있음. 주로 하는 일은 서빙/주방일(39.7%)과 매장관리(27.9%)이며, 평균 6.5개월 정도 근속에 주당 14.1시간 정도 근로를 통해 월평균 38.7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단순노무일로 인해 재학 중 근로경험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31.7%로 그다지 높지 않았음.

6) 학업 및 취업비용 실태 관련

-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 평균 34.7%,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2/3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67.7% 수준이며,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85.4%는 취업을 진로로 계획하고 있음. 취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특히 어학과 자격증 취득은 저학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조사 대상자의 51%가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7) 소비 및 여가활동 실태 관련

- 대학생들의 월평균 총 소비지출금액은 45.7만원이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에 비해 비동거하는 학생들의 소비지출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기본적인 생활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가 요구되는 여가활동은 3만원 미만 저비용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오락, 예컨대 인터넷 게임이나 노래방, 독서/만화, 쇼핑/외식 등의 활동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8) 사회적 위치 및 정체성 관련

-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하여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그리고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다 대학입학 후에는 목표를 상실하고 생애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계기를 갖게 됨. 먼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상대적 위치, 개인 간 격차, 구직 가능성 격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체감하게 됨.
- 대학 생활 및 진로 관련 다양한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특히 취업 관련 준비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지만 마땅한 상담 창구가 있는 것이 아님.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주변 친구나 선배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정책제안 1

국가정책으로서의 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정책 방향성 수립

❖ 제안 내용

- 첫째, 정책 수요 집단으로서 후기청소년 집단별 정책 수요, 영역 및 소요 예산 파악
- 둘째, 후기청소년 대상 정책 전담 부서 확보 및 총괄조정 기능 부여
- 셋째, 후기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대학생 생애진로지원센터 사업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사업의 확대 운영
- 넷째, 후기청소년세대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종합 대책 수립
 - ▶ 후기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 ▶ 후기청소년 예비부부 및 부모 교육 지원

❖ 기대 효과

- 후기청소년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 기반 확충
- 건전한 성인기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 기반 확충

정책제안 2

주거 관련 정책 제언

❖ 제안 내용

-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대학생전세임대 주택 조건을 완화 및 물량 확보
- 둘째, 대학생주거 월세 지원 방안 확충
- 셋째, 후기청소년대상 다양한 주거 공간 확보
- 넷째, 대학생 등 청소년 거주 밀집 지역 안전 확보

❖ 기대 효과

- 대학생 및 후기청소년들의 주거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보완
- 부모와 비동거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안정적 물량 확보 방안 모색

정책제안 3

등록금 관련 정책 제언

❖ 제안 내용

- 첫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 둘째, 다양한 장학금 제도 마련(기업과 학교 연계, 지방자치단체 연계, 근로장학금 제도 확대, 등록금의 일정 부분 장학금화 등)
- 셋째, 등록금 현실화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함께 가구가 떠안고 있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 마련
- 다양한 장학금 제도 혜택 확대

정책제안 4

재학 중 근로 관련 정책 제언

❖ 제안 내용

- 첫째, 재학 중 근로와 진로 연계 방안 마련
- 둘째, 재학 중 근로 관련 각종 교육 제공
- 셋째,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 보호 대책 수립
- 넷째, 국가차원의 청소년 근로 정보 시스템 개발

❖ 기대 효과

- 중장기적 생애 진로 설계를 위한 전공이나 관심분야의 개척
- 청소년 근로 관련 권리 보호 및 노동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정책제안 5

취업 준비 관련 정책 제언

❖ 제안 내용

- 첫째, 진로 및 취업 준비 관련 적절한 멘토 지원
- 둘째, 다양한 인턴십 참여 유도: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셋째, 영어 학습 및 자격증 관련 수강비 부담 경감 대책

❖ 기대 효과

- 부분별한 스펙쌓기, 과도한 취업 준비 사교육 비용 경감
- 기업과 관련분야 학교 및 학생과의 연계 효과

정책제안 6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

❖ 제안 내용

- 첫째, 문화 여가시설 이용 할인 혜택 부여
- 둘째, 후기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봉사 프로그램 개발

❖ 기대 효과

- 비용 부담으로 인한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후기청소년들의 멘토링 및 사회 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13-18청소년세대와의 연계 확대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3-9(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로 청소년에게 주어진 주2일의 휴일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활동 지원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결과 :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만족수준

- 청소년(80.8%)과 학부모(75.3%), 교사(92.9%)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여가시간)이 많아져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공부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청소년은 ‘주중 수업시간이 많아져서’(50.5%), 학부모는 ‘자녀가 주말에 혼자 집에 있게 되어서’(31.5%), ‘주말에 특별히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서’(27.6%)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2)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 참여수준 및 종류

- 학교 운영 토요프로그램에 1/3정도(32.5%)의 청소년이 참여 중이거나(24.4%) 또는 참여계획(8.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과반수정도(44.9%)가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거나(24.1%) 또는 참여시킬 계획(20.8%)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 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참여시키고 싶은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청소년은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56.4%), 학부모는 '자녀가 원해서'(41.0%)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교과학습관련활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스포츠관련활동은 남학생과 성적이 낮을수록, 문화예술관련활동은 여학생과 학교급이 낮을수록, 봉사활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진로관련활동은 여학생, 동아리활동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운영 참여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65.8%)과 학부모(66.3%)의 2/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부모는 초등>고등>중학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운영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청소년(62.4%)과 학부모(46.3%) 모두 '그냥 충분히 쉬고(쉬게 하고) 싶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수준 및 종류

-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에 1/5정도(19.4%)의 청소년이 참여(15.0%) 또는 참여계획(4.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1/3정도(29.4%)가 자녀를 참여(15.3%) 또는 참여시킬 계획(14.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참여 이유(중복응답)는 청소년(50.8%)과 학부모(41.8%) 모두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참여하고(시키고) 싶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중복응답), 청소년(41.5%)과 학부모(47.0%) 모두 스포츠관련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운영 참여 주말프로그램에 대해 2/3이상의 청소년(68.3%)과 학부모(70.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 밖 운영 주말프로그램 불참 이유(중복응답)는 청소년(65.7%)과 학부모(48.6%) 모두 '그냥 충분히 쉬고(쉬게 하고) 싶어서'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생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30.3%), 초등학생은 '거리가 멀어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서'(9.2%)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생활시간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시간이용 실태

-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한 평균 공부시간은 평일 2시간 59분, 토요일 2시간 54분, 일요일 2시간 26분,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1시간 42분, 토요일 5시간 5분, 일요일 5시간 23분, 평균 수면시간은 평일 7시간 8분, 토요일 8시간 40분, 일요일 8시간 29분인 것으로 나타남.
-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전과 이후의 생활시간 비교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보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시간은 학부모(43.7%), 교사(38.9%), 청소년(32.9%) 순으로, 학교수업시간은 청소년(39.5%), 교사(30.1%), 학부모(26.6%) 순으로, 학교 밖 공부시간은 교사(51.3%), 청소년(28.3%), 학부모(20.8%) 순으로, 주말활동 참여시간은 교사(79.6%), 청소년(38.4%), 학부모(37.1%) 순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교사(74.3%), 학부모(40.9%), 청소년(40.5%) 순으로, 잠자는 시간은 교사(54.0%), 학부모(44.2%), 청소년(42.1%) 순으로, TV·영화 보는 시간은 교사(58.4%), 학부모(42.3%), 청소년(34.7%) 순으로, 음악 듣는 시간은 교사(53.1%), 청소년(33.4%), 학부모(29.5%) 순으로, 게임이나 컴퓨터 하는 시간은 교사(62.8%), 학부모(31.0%), 청소년(24.4%) 순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교사(80.5%), 학부모(55.9%), 청소년(46.5%) 순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시간변화 인식에 차이를 보임.

5)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 이후 주말 여가활동 실태 및 선호도

-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1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1.8%)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주말프로그램 참여(0.3%)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말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고 싶은(하길 바라는) 활동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놀기'(19.8%), '여행'(16.6%), '스포츠활동'(12.3%), 학부모들은 '숙제나 부족한 공부하기'(32.0%), '스포츠활동'(16.8%), '책·만화읽기'(12.9%) 순으로 나타나 선호도에서 차이를 보임.

6)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주말활동 운영관련 요구

- 1/3이상(40.0%)은 '학교가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 운영'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지역체험기관에서 계획하고 운영'(25.2%), '학교가

계획하고 지역사회 관련기관(시설)에서 운영'(14.9%),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계획하고 운영'(12.3%),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획하고 운영'(6.1%) 순으로 나타남.

-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학교 밖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3,11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과반수정도(45.3%)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체험활동 하기에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24.6%),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13.6%)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는 청소년에 비해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말활동 운영장소에 대해 청소년은 공원·야외(60.8%), 박물관·미술관·과학관(27.0%), 문화센터·체육회관(22.0%), 학교(15.9%), 청소년수련시설(12.6%), 학원 등 사교육기관(7.3%) 순으로, 학부모는 공원·야외/문화센터·체육회관(45.1%), 박물관·미술관·과학관(40.6%), 학교(36.9%), 청소년수련시설(26.4%), 학원 등 사교육기관(7.2%) 순으로, 교사는 문화센터·체육회관(85.8%), 박물관·미술관·과학관(77.9%), 공원·야외(71.7%), 청소년수련시설(65.5%), 학교(16.8%), 학원 등 사교육기관(2.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후 주말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으로 청소년은 친구(61.5%), 가족(27.1%), 혼자(5.5%),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4.0%) 순으로, 학부모는 가족(36.2%), 친구(25.3%), 활동전문지도자(20.8%),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16.3%) 순으로, 교사는 가족(62.8%), 활동전문지도자(16.8%), 동아리나 학급 등의 그룹(12.4%), 친구(7.1%)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말활동유형에 대해 청소년은 1일현장체험형(41.9%), 캠프·숙박형(37.3%), 학습강좌형(12.6%) 순으로, 학부모는 1일현장체험형(62.0%), 4주에서 8주 정도의 연속(패키지)프로그램형(16.8%), 학습강좌형(13.5%) 순으로, 교사는 1일현장체험형(60.2%), 4주에서 8주 정도의 연속(패키지)프로그램형(29.2%), 학습강좌형(8.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달 주말활동 참가비용으로 적당한 액수로는 1/3이상(35.0%)이 무료, 그 다음으로 10,000원 이상~30,000원 미만(20.7%),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18.7%), 10,000원 미만(10.5%) 순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는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해 주기 원하는 주말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에 대해 청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48.4%), 여행등 현장견학 프로그램(40.5%),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40.3%) 순으로, 학부모는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61.5%),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38.7%),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 (27.6%), 봉사활동 프로그램(20.8%) 순으로, 교사는 특기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77.0%),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38.9%), 여행 등 현장견학 프로그램 (25.7%) 순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운동이나 놀이프로그램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들이 주말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2/3(66.9%)는 '다양한 주말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주말활동 관련 시설 확충'(18.0%), '주말활동 전문 지도인력 확충'(11.9%)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7)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요인 및 활동효과에 대한 인식

- 주말활동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으로 청소년은 재미있어야 한다(63.3%),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40.3%),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4.3%),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7.1%) 순으로, 학부모는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5.3%), 재미있어야 한다/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37.1%),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27.6%),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15.9%) 순으로, 교사는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어야 한다(50.4%), 재미있어야 한다(37.2%),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25.7%)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학부모, 교사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말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51.6%), '다양한 취미가 생기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강화될 것이다'(41.5%),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37.5%),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다'(34.6%) 순으로 나타남. '학교 친구 외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을 것이다'는 청소년이(청소년:41.1% 학부모:24.6% 교사:8.0%),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적성 및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는 학부모와 교사(청소년:38.5% 학부모:61.5% 교사:64.6%),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족 간에 친밀감이 생길 것이다'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청소년:19.1% 학부모:16.9% 교사:47.8) 나타남.

정책제안 1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 및 청소년 활동정책의 방향(4I's) 설정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어도 2가지 기본전제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전환,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및 재구조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함.
- 둘째,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을 ① 언제, 어디서나 청소년활동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information) ②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infrastructure) ③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활동기록 누적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incentive) ④ 부모, 학교, 사회가 지지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interconnection)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4가지 정책 방향의 첫 글자를 따서 4I's로 청소년활동정책의 재구조화를 제안하였음.

❖ 기대 효과

-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수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환경 변화 전략과 관점 마련

정책제안 2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4대 정책목표, 2개 공통과제, 2개 추진체계정비 및 25개 정책과제로 구성·제시

❖ 제안 내용

- 첫째, 네 가지의 청소년활동정책방향(4I's)에 따라 정책목표는 각각 ① 다양한 활동정보 제공, 조언 및 상담 ② 다양한 활동 참가기회 부여 및 참가보장 ③ 활동기록 유지관리 및 안전 ④ 학교 교육과정, 발달단계와 연계한 활동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공통과제로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청소년의 주말활동 지원, 여자청소년 활동지원 방안도 별도로 설정하였음. 그리고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활동지원체계 정비 및 기능 강화와 제안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제 등 2개의 추진체계 정비 역시 별도의 과제로 제안하였음.

- 둘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언 중 두 번째 다양한 활동 참가 기회 부여와 참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학교시설중심, 청소년수련시설중심,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과제로 대분류하여 제안하였음. ① 학교시설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과제로는 학교 내 ‘청소년센터’ 건립·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유연화 전략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단위학교 간 네트워크 강화, 주말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인정확점 부여, 개방형 토요일과후학교 등 토요일학교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교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교원의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확대 및 ‘교육봉사업무 시간제’ 도입,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 강화 ② 청소년수련시설 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과제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 기능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거점 역할 수행 및 배치 청소년지도사 역할 차등화 등 지원 확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 역할 전문화 및 역할 재정립, 찾아가는 청소년지도자 파견 청소년 체험활동(학습)사업 운영 활성화 ③ 지역사회중심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 과제로는 ‘(가칭)청소년활동기회카드’ 도입, 지역의 공공기관 주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의무화, 지역사회 민간 참여를 위한 ‘청소년주말활동지 원기관인증제’ 도입·운영 등이 제시되었음.

❖ 기대 효과

- 공급자 중심적이었던 정보제공을 통합적으로 원스톱화하여 제공하고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중심의 자원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정보의 양적 확대와 전달의 효과성 및 참여기록 활용도 제고 등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청소년의 활동 참가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와 그들이 참여한 활동기록을 누적하여 제공함으로써 활동기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청소년 주말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의 민간상업시설에 역할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자원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저변확대와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학교나 지역사회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필요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음.
-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학교시설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학교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5-3(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청소년정책은 대상 중심정책으로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청소년이라는 동일 대상을 놓고 여러 부처에서 각기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추진할 때는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게 돼 정책의 총괄조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청소년정책영역을 구분하고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범주를 확립하고자 하였음.
-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의 범부처 청소년정책업무 관장사무와 정책추진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에 대한 청소년정책 수요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의 방향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요결과

1) 청소년정책 영역의 구분

- 청소년정책영역을 OECD, UN, World Bank, EU의 구분을 종합하여 청소년교육, 고용, 건강, 여가활동, 국제활동, 참여, 사회통합, 가족지원, 위기청소년지원, 유해환경 단속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함.

2) 부처별 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 정부조직법 상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처는 여가부, 복지부 등 2개 부처이며 학교교육을 포함하면 3개 부처임. 직제규정 상당수 부처가 청소년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가

죽부와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 관련 예산규모는 교과부, 고용부, 여가부, 복지부,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순으로 많았음(이상은 1,000억 원 이상).
- 부처가 중점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있는 정책영역을 보면 여가부, 교과부, 통일부, 농림부, 복지부, 국토부 등이 사회통합·위기지원에 대한 예산 투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부처였음. 그런가 하면 국방부·행안부, 지경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처였음. 이 외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해환경 관련 사업에, 외교부는 국제 활동, 문화부는 여가활동, 고용부는 고용지원 등 부처기능에 부합하는 예산투입이 가장 많았음.
- 부처별 사업전달체계를 보면 공공전달체계가 강했으며 통일부, 고용부, 농림부, 복지부는 타 부처에 비해 민간기관·단체를 통한 청소년사업 전달체계가 강했음.
- 총괄조정이 필요한 정책영역의 우선순위와 해당 부처를 도출한 결과 사회통합·위기청소년지원·청소년교육·청소년유해환경 단속이 개입부처 수와 예산규모가 커서 총괄조정의 필요가 가장 컸음. 다음으로는 여가활동, 고용, 건강·가족지원의 순으로 총괄조정의 필요성이 컸음.
- 청소년의 위기유형별로 예산투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정이 취약한 청소년, 기출·비형 등 위기청소년, 탈북·다문화 청소년, 장애청소년, 미혼부모 청소년 순으로 예산투입이 이루어졌음.

3)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와 정책추진 현황 비교

- 청소년정책영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정책영역별로 중요도 순위와 정책영역별 예산투입현황 순위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은 유해환경 영역이었음.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정책영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투입은 타 정책영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외에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떨어지는 정책영역은 가족지원영역, 건강영역,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이었음. 반면 수요조사결과 중요도에 비해 예산투입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고용영역이었음. 정책영역별 수요와 추진현황 간의 격차가 큰 유해환경단속, 가족지원 영역과 건강,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은 시급히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고용이나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세부 정책사업 수요의 중요도와 예산투입현황 비교하면 성범죄방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정신건강증진, 청소년 안전 및 기본권 보호,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기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위기청소년·장애청소년 지원,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 미혼부모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속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외 부모교육,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활동,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강화, 일반청소년에 대한 문제행동 예방 및 안전교육, 가족상담 등도 정책적 수요가 높았음. 이렇게 정책수요가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투입이 작은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이었음. 역으로 예산투입순위가 높은 사업 중에 중요도 순위가 현격히 낮은 사업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생활비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 지원 등이었음.

4) 국내외 정책사례와 시사점

- 국내의 정책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법적·형식적 제도는 잘 구비하였지만 수평적 업무분담구조와 타분야에 대한 정책역량의 미흡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성주류화정책은 지속적인 역량의 투입으로 점진적 발전을 해나가는 정책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해외 4개국의 총괄조정 특징을 살펴보면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장관이 정부유관기관에 지침서를 하달하여 청소년관련통계와 지표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알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 핀란드의 경우, 중앙부처간 협력은 공식적 제도보다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독일은 청소년정책 고유영역, 즉 부문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국가로서 청소년정책총괄조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음. 영국의 경우,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정부평가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촉진하고 있었음.
- 국내외 사례로부터 정부 각 부처별 관장업무에 대해 수평적 분담 구조가 필요하며 총괄조정 대상 정책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총괄조정 부처는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적 의제 설정 능력이 필요하며 청소년정책분석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며 각 부처의 정책통계로 청소년 분리통계(청소년과 기타 세대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세대별 분리통계), 청소년지표(또는 청소년 육성 지표, 삶의 질 지표)를 확정, 지속적으로 산출하여야함에 대해 시사점을 얻었음.

5) 한국의 청소년정책의 특징과 방향성 모색

- 수요조사결과 한국의 청소년상은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재하는 상태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 중고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집중대상이며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유럽 4개국에 비해 비교적

연령범주가 넓고 청소년정책의 부문화 수준도 넓은 특성을 갖고 있음. 정부조직은 유럽국가와 달리 부처간 경직성과 폐쇄성을 가져 협의조정에 의한 연성적 수단으로는 총괄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었음.

정책제안 1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

❖ 제안 내용

-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영향을 볼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
-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의 본격적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정부업무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범부처 청소년관련 사업과 예산을 가시화하고 해당 정책을 청소년 친화적으로 전환시킴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강화함

정책제안 2

범부처 청소년예산체계 확립

❖ 제안 내용

- 청소년예산의 개념 및 범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범부처 청소년예산체계를 확립해야함. 현재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상의 중앙행정기관 예산자료로는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기대 효과

- 범부처 청소년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청소년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가 가능함

정책제안 3

청소년지표 개발 · 청소년통계의 산출 및 관리

❖ 제안 내용

- 청소년업무 주부부처로서 관계기관에 지표산출 지침을 내려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을 지표로 구체화하여야 함. 현재 청소년백서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는 청소년의 삶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스웨덴의 지표를 참조하여 청소년고용, 범죄, 주거, 교육, 여가, 빈곤, 건강, 진로 등 청소년생활의 전 영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에 대한 지표를 개선하는데 청소년정책이 기여해야 함.
- 범부처 관련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영향을 증대시킴

정책제안 4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 제안 내용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우선순위 영역 및 상대부처 설정 등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을 위한 우선순위로서 유해환경단속, 가족지원과 건강, 위기청소년지원영역이 사회적 수요가 시급한 영역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이 필요함. 청소년고용이나 사회통합, 청소년 교육영역은 사회적 수요에 비해 예산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정책영역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내용의 점검이 필요함.
-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설정 및 추진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 영향이 큰 부서와 사업부터 실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가능함.

정책제안 5

부처별 청소년정책 업무분담체계 확립

❖ 제안 내용

- 청소년 정책 및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해 각부의 직제규정을 재검토하고 직제규정에 청소년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총괄조정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에서 여러 행정기관이 서로 총괄 조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소관역할을 명료화하고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업무분담은 해당 부처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킴

정책제안 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강화

❖ 제안 내용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강화하여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함. 현행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을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협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지원”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동 조항을 개정하여 ‘(가칭)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부처별 청소년정책 영역의 우선순위 검토”를 추가함.

❖ 기대 효과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579-2(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2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
- 표준화 된 청소년 도덕성 검사 도구는 학교별 혹은 개인별로 도덕성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함.
- 학생이 가진 도덕적 성향을 파악하여 어떠한 점을 강화시키고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한 도덕성 유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도덕성 구성요소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성 수준을 진단하고, 청소년 구성요소별 부족한 도덕적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현장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제시

❖ 주요결과

1) 표준화된 도덕성 측정 도구 개발

-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걸친 두 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었으며, 전국 조사를 통해 그 신뢰도가 입증됨. 개발된 문항의 신뢰도는 세 영역에 걸쳐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본 검사도구는 각 영역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전국단위의 청소년도덕성 측정

- 자신을 매우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그룹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부족하고, 실제 자신이 가진 도덕적 사고능력보다 이를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사고 능력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처방이 제공된다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임.

3) 도덕성 기준표 제시

- 도덕성 구성요소별 유형화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성 표준 기준표에 의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에 위치에 속하는지 파악이 되면 자신의 어떠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약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임.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판단력, 도덕적 동기화, 도덕적 품성화의 각 영역이 강하거나 약할 경우 그 유형의 특징을 서술함.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은 본 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 모두 강점을 보이는 것이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유형 임.
- 네가지 영역의 유형표

표 1 도덕적 감수성이 강한/약한 유형의 특징

약한 경우	강한 경우
<p>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서 이것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낮다. 이것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서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 단서들이란 상황의 물리적 요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나 감정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 민감하지 못하여 타인이 처한 상황에 공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황 이해능력이 낮으므로, 주어진 상황이 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윤리적으로 잘못된 상황에도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도덕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다.</p> <p>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잘 예측하지 못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각의 대안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미리 생각해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가능한 여러 행동들 중에서 특정 행동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p>	<p>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해 민감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빠르고, 상황과 관련한 상대의 정서나 감정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파악 능력은 주어진 상황에 내포된 도덕적 문제를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못된 상황에 딱딱드리게 될 경우 도덕 행동으로 옮기는데 도움이 된다.</p> <p>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잘 예측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가능성에 대해 빠르게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한 각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대안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p>

표 2

도덕적 판단력 (P점수) 이 강한/약한 유형의 특징

약한 경우	강한 경우
<p>스스로 도덕적이라 생각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거하여 행동할 수 있다. 권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한 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보며,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 공정성보다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규칙이나 법은 준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p>	<p>판단력이 높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는 능력이 높다. 판단력이 높을수록 고차원적인 도덕적 사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거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한 규칙(인습)을 잘 따르지만 잘못된 규칙이라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단 내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원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즉,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악법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유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 공정성 등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한 규범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p>

표 3

도덕적 동기화가 강한/약한 유형의 특징

약한 경우	강한 경우
<p>도덕적 가치가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당당함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기 어렵다. 왜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와야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해도 스스로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에 민감하지 못하다. 설령 특정 행동이 옳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p>	<p>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치들 (예: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가치) 중에서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옳지 못한 방법으로 목적 달성하기보다 실패하더라도 목적을 정당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도덕을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 전반에 퍼져 있으며, 만일 자신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 민감하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에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러한 도덕적 태도와 감정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흔들림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도덕 동기화가 강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도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p>

표 4

도덕적 품성화가 강한/약한 유형의 특징

약한 경우	강한 경우
<p>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 혹은 유혹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나 의지력이 부족하며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거나 만족을 보류하는 것이 어려워 이러한 성향은 도덕적 행동을 달성하는데 장애물이 된다.</p> <p>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에 둔감한 편이며, 이와 관련한 의사소통 기술이 낮다. 타인과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조언하기가 어렵고 자신 또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하기가 힘들다.</p>	<p>도덕적 행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이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나 의지력이 있으며, 도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나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p> <p>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관련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서, 타인과의 갈등이나 문제를 신뢰가 형성되는 방식으로 협상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술선수법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지에 대해 타인에게 조언할 수 있다.</p>

정책제안 1

❖ 청소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교육행정부처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도덕성 수준 지표화를 통하여 청소년 도덕성의 일반적인 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함
- 도덕성 4구성요소 가운데 강점과 약점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개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 함

❖ 기대 효과

- 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도덕성 또는 인성 계발 과정 개정 논의시 교육 내용체계 및 교수·학습 모형 개발 할 수 있는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청소년 도덕성 관련 연구기관(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성 검사 결과를 통해 변화 추세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제안 2

- ❖ 국가 수준의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과학적 검사와 교육적 처방 제시
 - 표준화된 검사도구에 의한 검사를 통해 산출된 청소년의 도덕성 검사 데이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탐색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임.

- ❖ 기대 효과
 - 학생 개인 수준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수준과 강점과 약점을 자기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하여 자기 주도적 인성교육을 위한 동기를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함

보호·복지 분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4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혜연 4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56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Ⅰ: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6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Ⅱ (협동)	· 최인재 7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협동)	· 백혜정 7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7-7(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8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종단자료 수집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파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격차를 보이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주요결과

1) 패널종단연구: 양적조사

- 다문화패널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고,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저소득층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정도가 자녀의 발달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고 어머니가 한국사회에서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임.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정서행동영역, 문화적응 영역에서의 발달은 대체로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가정의 소득수준별,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발달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2차년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2) 패널종단연구: 질적연구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한국인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한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함.
-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아닌 부모나라 말을 이중언어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취급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
-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운영하다보니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결과를 낳기도 함.

3) 정책요구분석

-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학부모는 대부분 다문화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반면, 공무원들과 현장전문가, 교사 등 관계자들은 비(非)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과 통합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는 경향이 높음.
-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지원율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며, 유사사업의 중복공급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정책 집행부의 일원화가 요구됨. 현 지원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 문제가 있긴 하나,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함.

4)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정책 분석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방향 구체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방향 및 지원 내용 모색

및 전달체계 확립 등 법령의 구체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 추진체계별 조율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해 정책사업의 지속성여부 판단 및 지원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정책제안 1

분리가 아닌 통합

❖ 제안 내용

-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 특성이 아닌 일반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 기대 효과

- 다문화청소년들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지속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수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안 2

일원화된 추진체계 확립

❖ 제안 내용

-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 재정비 및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통한 정책수립방식, 전달체계, 지원정책의 내용 재구조화

❖ 기대 효과

- 정확한 수요 및 공급을 파악하고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정책 운영
- 중복수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방지 및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안 3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재구조화

❖ 제안 내용

- 대상자 특성 및 욕구를 무시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다문화청소년정책 지양 및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수행

❖ 기대 효과

-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다문화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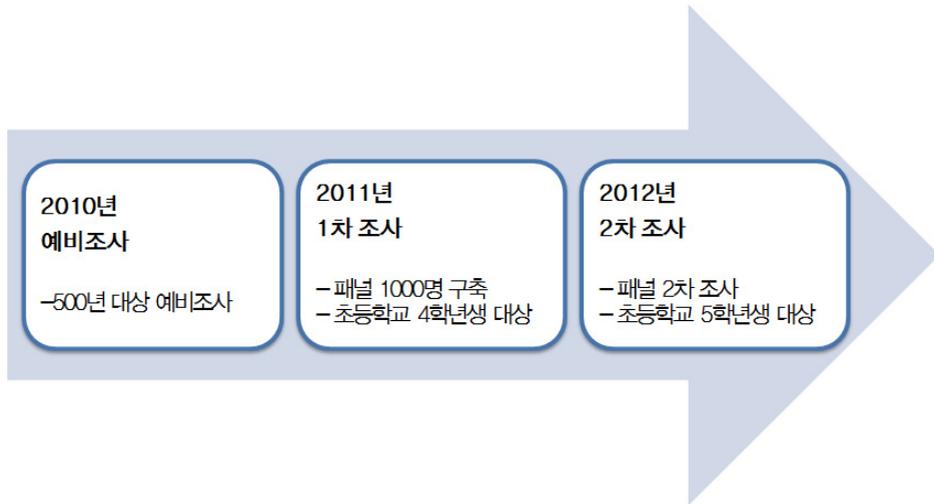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해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8-4(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9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취약가정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은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발달과업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열악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종단조사를 통해 그 변화양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종단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 2011년 1차 조사를 거쳐 2012년 2차 조사가 실시됨.
- 2012년 연구의 목적은 첫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차 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2011년 1차 본조사 결과와 종단으로 비교·분석하여 지난 1년 동안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임.
- 2011년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결과와 횡단으로 비교·분석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청소년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임.
- 2012년 조사에서 이탈된 즉 시설이용 중단 아동·청소년과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
- 이러한 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해 가야 할 정책을 제언하는 것임.

구분	패널유지관리	본조사	부가조사(심층면접)	패널유지관리
일정	• 2012.01~06	• 2012.07~08	• 2012.07~08	• 2012.08~12
조사대상	• 1차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1,000명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 이용 초등학교 5학년 생 801명	• 시설이용변화/시설지속이용 아동·청소년 50명	• 본조사에 응답한 패널 801명 및 접촉 가능 패널 50여명
조사내용		• 일상생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 • 기관(시설)제공 서비스 만족도, 이용효과 등	• 시설이용 중단시기/사유/시설이용 중단이후의 생활실태 • 시설 지속이용 경험의 의미	
비고	• 2차 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 관리 활동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신학기 기념선물 증정	• CAP(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로 아동과 1:1면접조사 수행 • 조사대상응답자 패널 801명 구축	• 1:1심층면접조사	• 3차본조사 수행을 위한 패널 유지관리 활동 • 분기당 1회 전화로 변동상황 확인 • 시설통한 변동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방학 기념선물 증정



【그림 1】 2012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의 주요내용

❖ 주요결과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1차-2차 종단조사 결과분석

- 신체적 발달 중 수면시간은 전체 이용시설에서 전년도 대비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인지적 발달과 관련하여 과목별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전체과목 평균을 기준으로 학업성취도가 3.39점에서 3.30점으로 하락하였고 과목별로도 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전년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상위인지력은 전년도 대비 전체평균(3.27)이 전년도 (3.48)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문제해결능력 전체평균도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이용시설에서 문제해결능력이 하락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 사회·정서적 발달 중 자아탄력성 전체 평균점수는 2.96점으로 전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시설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타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생활적응력은 전체평균에서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스트레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숙제나 시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전년 조사 대비 상승한 반면,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와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시설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시설에서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지도자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다소 상승하였고, 시설서비스에 따른 긍정적 생활변화의 전체 평균점수는 3.86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하여 모든 시설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임.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패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및 저소득층 비교

- 가족 배경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반면, 취약계층패널이나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10명 가운데 5~6명 정도만이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은 73.4%, 방과후아카데미 아동·청소년은 68.2%,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75.1%인데 비해 아동청소년패널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은 3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체적 발달 중 수면시간과 관련하여 양육시설 아동과 아동청소년패널 저소득층 아동의 주중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아동의 수면시간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수면시간보다 많았음.

- 인지적 발달 중 평가 대상이 되는 10개 과목 가운데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에 있어서의 학업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아동·청소년패널의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이 나머지 4개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학업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남.
-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활동, 학교교직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4개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학습활동의 경우 학교교직 준수, 교우관계에서 모두 아동·청소년패널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아존중감 수준에 대한 비교에서는 아동·청소년패널 아동들이 취약계층패널 아동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패널에서도 일반가정 아동·청소년들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 아동·청소년들은 주로 엄마의 제안으로 시설에 다니게 되었으며, 시설의 첫 인상은 긍정적·부정적 응답이 혼재되어 있었음.
- 시설이용(시설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친구들과, 같은 시설을 다니는 형·동생들과의 즐거운 “놀이”였음.
- 선생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동·청소년은 선생님에 대해 “교육”과 “보육(보호)”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평가는 친구 영역에서는 “친구(형·동생 포함)와 어울리기 좋은 곳”, 공부 영역에서는 “혼자서 공부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곳”, 일상생활(도움) 영역에서는 “도움을 제공하는 곳, 자유를 보장하는 곳”, 선생님 영역에서는 “전문 선생님의 지당한 지도가 제공되는 곳”을 기준으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들의 평가를 보면, 공부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기대의 차이가 시설에 대한 호불호로 이어졌지만, 시설에서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가 높은 만족을 보였음.
- 아동·청소년이 시설에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은 시설에 대해 “놀이터: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노는 곳”, “배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베스트 파트너”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정책제안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 제안 내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변화양상을 세부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또한 관련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가 항목을 구성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점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차후 이러한 종단조사를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조사와 관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제안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 제안 내용

-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돌봄이 필요한 아동 중에서도 경제적인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인 이용기회를 주면서 점차 돌봄이 필요한 일반 아동에게도 이용기회를 개방해야 함. 영유아보육시설처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가정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을 것임.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확산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제고

정책제안 3

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제안 내용

- 각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이용 아동·청소년의 경제수준 및 가정환경, 발달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특히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취약한 학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방안 개발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동양육시설의 고유특성을 살린 서비스 개선

정책제안 4

시설서비스 효과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

❖ 제안 내용

- 시설종사자의 낮은 보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직무관련 전문성이 강화되고, 시설종사자의 수가 증원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체계화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

정책제안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유형별 발전방안

❖ 제안 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개인신고시설 위주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점형센터나 국공립센터 등 다양한 센터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의 전문 자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소요예산의 적정화와 서비스의 누락 및 중복을 줄이기 위한 보육정보시스템과 유사한 방과후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와 각각의 역할, 지역 내 연계협력체제 구성원간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등 정책전달체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양질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판단의 기준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해 지역 특성과 고유한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을 확립하여야 함.
-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성격에 맞는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보호에 집중하고 가정형 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 시설을 지양하고 복합시설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호기준을 표준화 하고 보호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건전성장 도모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408-5(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0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멘토링 운영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청소년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와 함께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와 그 영향 요인을 검증함으로써 멘토링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유용성과 멘토링 효과성 증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건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음.

❖ 주요결과

1) 국내 청소년멘토링 현황 및 실태조사

- 국내 청소년멘토링 정책과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탈북 청소년, 비행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학습, 진로, 정서,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멘토링 사업은 부처별, 사업주체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가수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멘토링 운영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 국내 883개 청소년관련 기관 중에서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41.1%였으나, 향후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 8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멘토링을 시행하지

않거나 과거에 시행했으나 현재 중단한 이유로 인력 부족과 재원 부족이 많음.

- 사업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부족이었으며, 청소년멘토링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69.3%였으며, 5개월 이하 단기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21.5%, 특별한 멘토 선정 절차가 없는 경우도 24.7%나 됨.
- 멘토교육(88.9%)이나 멘티교육(52.7%), 사업 담당자 수퍼비전(69.6%), 멘토링사업에 대한 모니터링(89.7%), 멘토링 평가체계(86.7%) 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어 멘토링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관리·운영시스템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2) 외국 청소년멘토링 사례조사

- 미국의 청소년멘토링은 정부차원의 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전체 미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청소년멘토링의 대상과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만 멘토링의 내용은 자율적이며, 청소년멘토링을 실시하는 부처는 다양하나 각 정부 부처의 특성을 살려 각기 다른 청소년멘토링의 목표를 두고 있음. 연방멘토링협의회(Federal Mentoring Council)와 같은 기구가 있어서 중복사업을 예방할 수 있고,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여 각 부처의 특성을 살린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멘토링이 긍정적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영국의 멘토링은 주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청소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사용되며, 미국의 멘토링과 프로그램이 영국에 소개된 이후 노동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요 도시에 멘토 포인트(Mentor Point)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멘토링이 확대되었음. 영국의 멘토링은 멘토링 그 자체가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주요 전달 수단이라는 점, 청소년멘토링 활성화와 질 높은 멘토링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멘토링을 총괄·조정하고 보급하는 멘토 포인트(Mentor Point)나 멘토링친구맺기재단(Mentoring and Befriending Foundation)과 같은 기구가 있고,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여 멘토로 활용하고 있으며, 멘토링 인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청소년멘토링 제도는 20년 전 남성에 비하여 직업적으로 직장에서 승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 단위나 프로그램 단위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에서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차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멘토링의 멘토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멘토링이 단순히 숙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일찍부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진정한 교육지원 멘토링임.

- 호주에서의 청소년멘토링은 대학 신입생이나 신입사원 멘토링처럼 교육이나 취업에서 성공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 원주민청소년, 학업 중도 탈락자 등 소외계층청소년을 포함한 멘토링 정책의 확대와 프로그램들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호주의 청소년멘토링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민관 합동 청소년멘토링 조직의 필요성, 청소년멘토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멘토링과 직업훈련의 연계, 여성 및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정책의 활성화, 멘토로서의 은퇴자 활용, 사이버 멘토링의 확대, 멘토의 자질 검증 강화 시스템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3)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요인 분석

- 청소년멘토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 분석은 멘토와 멘티, 코디네이터,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
- 양적 조사 결과에서 멘티의 효과성에는 멘토링 참여도, 문화활동, 수련활동, 멘토와의 관계, 멘토링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멘토링 참여도와 문화활동, 수련활동이 효과성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멘토의 효과성에는 멘토링 참여경험, 멘토링기간, 사회활동 참여경험, 멘티의 참여도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 중에서도 멘토의 사회활동 참여경험과 멘티의 참여도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음.
- 질적 조사 결과에서는 멘토링 효과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멘토링에 대한 명확한 이해, 멘토의 성실성과 관계형성 기술, 멘토의 기대 등 멘토 요인, 멘티교육, 멘토와 멘티의 매칭시스템,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개입, 활동프로그램 및 장소, 멘토링 관리 체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안정적인 예산 등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멘토링사업 운영자를 통해 본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요인으로는 멘토와 멘티교육, 모니터링 여부, 수퍼비전 여부, 평가체계 여부, 운영기간 등이 관련되어 있었음. 멘토교육이 멘토링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의 요인보다는 전담인력, 멘토교육, 멘티교육, 모니터링, 담당자 수퍼비전, 평가체계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멘토링

효과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종합적으로 청소년멘토링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멘토 및 멘티교육, 멘토링 활동내용, 참여도, 코디네이터의 개입, 담당자 수퍼비전, 관리체계 구축, 평가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고려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4)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전망에 대해 청소년멘토링 전문가들은 청소년멘토링 전문가 양성이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5년 이내) 주요 이슈 또한 전문적인 청소년멘토링 교육이라고 응답하여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멘토링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었음.
- 청소년멘토링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청소년에 대한 지지체계 제공과 멘토와 멘티 상호작용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멘토링의 주요대상은 저소득층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등으로 멘토링을 특별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정, 치유적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청소년멘토링의 문제점으로는 멘토링 기법 등을 지원하는 전문가 부족과 단기적인 청소년멘토링 운영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청소년멘토링의 정책목표는 멘토·멘티의 동반성장, 청소년멘토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청소년멘토링의 정책과제로는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확대, 청소년멘토링에 적합한 멘토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청소년멘토링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내 학습, 진로,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및 전문가, 기업의 멘토링 참여 지원제도 마련의 순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지원, 국가차원의 청소년멘토링 정책 수립,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기관에서는 멘토링 담당자교육,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홍보 등 멘토링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효과적 사업 운영을 제시할 수 있음.

정책제안 1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인식 확산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멘토링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 둘째, 청소년멘토링 매뉴얼 개발·배포
- 셋째, 청소년멘토링의 우수사례 발굴·보급·홍보

❖ 기대 효과

-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정책담당자의 청소년멘토링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개선
- 청소년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정책제안 2

청소년멘토링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 제안 내용

- 첫째, 체계적인 청소년멘토링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둘째, 멘토·멘티 통합 관리와 선순환 구조의 구축
- 셋째, 체계적인 멘토·멘티 매칭·재매칭 시스템 구축
- 넷째,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수퍼비전 체계 마련
- 다섯째, 지속적인 청소년멘토링 효과성 검증, 정부 및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 운영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 멘토링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소년멘토링의 효과 개선

정책제안 3

멘토 및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선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 대상의 멘토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둘째, 은퇴자 및 경력단절 여성의 멘토 활용
- 셋째, 다양한 전문가집단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 확보
- 넷째, 청소년멘토링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구축
- 다섯째, 청소년멘토링 사업담당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시스템 구축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멘토 및 전문가 확보
- 멘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멘토링의 질적 개선에 기여

정책제안 4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증시스템의 개발
- 둘째,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 셋째, 활동영역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넷째, 청소년 온라인멘토링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기대 효과

- 다양한 청소년들의 멘토링에 대한 요구 충족
- 우수한 청소년멘토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증진

정책제안 5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멘토링지원법(가칭) 제정 및 청소년 관련 법 개정
- 둘째, 청소년멘토링 참여등록제 실시

❖ 기대 효과

- 청소년멘토링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
- 청소년멘토링 시행기관의 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587-7(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3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노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대폭적인 개정과 전자발찌의 소급입법이나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주민고지제도 등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음.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그 동안의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음. 또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시설운영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프라와 성인여성 대상의 인프라를 통합해가는 추세에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국 244개 시군구에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대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안전망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확대가 요망됨.

-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는 성폭력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학교폭력으로써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청소년이고, 다른 학교폭력 유형에 비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학교에 다니거나 같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에 심각한 고통이 따르므로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선도, 가해-피해자의 화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회복적 정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정의이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주요결과

1) 연구방법

-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임. 성폭력 관련 시설은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임. 이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학교 성폭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Wee센터를 포함했음. 각 시설별 종사자 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추산으로 총 1,382명임. 전문가 의견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 먼저 예비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별로 각 1명씩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음.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본조사는 7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들 중에서 30% 내외의 회수를 목표로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음. 484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35%), 회수된 설문지 전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음. 이들 자료에 대해 SPSS/WIN(ver.12.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했고, 자료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했음.
-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고 있는 가해청소년과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보호자임. 가해청소년 4명, 피해 아동·청소년 6명, 보호자 4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 사례조사는 6개 지역의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담당공무원을 만나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하였음. 여성가족부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사례 해당기관으로 대상기관은 강원도청, 순천시청, 경상남도청, 서울 중랑구청, 경기도 군포시청임. 조사기간은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음.

2)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의 우선순위는 1순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순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3순위 '성폭력 예방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는 1순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순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3순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순으로 나타났음.
-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음.
-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 모두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와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지역사회 스스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피해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및 시설 확충'과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통해 비가해 가족이

- 피해아동을 돕고 보호시설 퇴소후 피해자의 가정 정착력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과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피해지원이 강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성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음란물 등 유해환경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면접조사

- 피해아동·청소년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연계되었다가 나중에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계됨으로써 2차피해를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광고 형태의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고,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소규모 성교육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피해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해청소년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욕구가 높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욕구를 나타냈음.
-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형량이 강화되고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사형과 같은 강력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가정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불안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사례조사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연대 회의 시 상담소나 지원센터에 비해 범죄예방을 본 업무로 담당하는 검찰, 법원, 교정 등의 국가기관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지역연대는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관내 사업들이 지역연대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기도

- 했지만, 대다수 지역연대는 기존 사업들과 지역연대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지역연대에서 1차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은 잘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아동·성폭력 사후 피해지원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지역연대가 남성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의 지역연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적 지역연대 운영비는 720만원 정도로 대부분 참가 위원들의 인건비 및 식사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제안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는 피해자 생활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둘째, 많은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 셋째,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동성폭력 매뉴얼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학교를 떠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함.
- 넷째,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과 함께 이미 6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동성폭력 대응메뉴얼이 실제상황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 다섯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여섯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이나 갈등조절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되어야 함.

- 일곱째, 성폭력은 가정폭력, 성매매와의 중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궤적을 미루어볼 때 지원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 전문가들은 성폭력의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축적과 성매매여성이라는 낙인을 모두 갖게 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여덟째,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함.
- 아홉째, 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함.
- 열째,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확대·신설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needs)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피해자와 청소년 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열한번째, 성폭력의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중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병행하여 상담, 치료,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이 필요함.
- 열두번째,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은 서비스 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역할 중복 조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필요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예방, 피해자 가족에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아동·청소년 치료강화,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관점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강화.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
- 남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아동·청소년 전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확대설치,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시설간의 기관간 연계와 협력.

정책제안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방법이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통제를 위해서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므로 학교에서 관련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안전지도 제작을 필수 수업 내용으로 지정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업그레이드 된 안전지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임.
- 둘째, 지역연대를 통해 피해 고위험 아동의 반복피해를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후 개입,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안에 따라 피해아동 지원 문제를 지역연대 속에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및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할 방안이 필요함.
- 셋째,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연대가 필요한데,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역연대 예방 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전파될 수 있음.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비용-편익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넷째, 여성아동은 보통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남성아동에 대한 지원 여부는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는 지역이 대다수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사후지원 서비스가 지역연대를 통해 보다 일반화·전문화될 수 있다면, 그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별-적합 치료 차원의 남성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역연대에서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다섯째, 지역공동체의 성폭력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면, 국가 범죄예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실제 성범죄 문제행동의 변화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 운영해야 하며, 각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학교에서 관련 수업시간과 연계되어 안전지도 제작을 필수 수업 내용으로 지정, 지역연대속에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 및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개입.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연대 확대, 성별-적합 치료 차원의 남성 피해아동에 적합한 개별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도 지역연대에서 제공, 각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

정책제안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 제안 내용

- 첫째,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우선, 기소전, 재판단계, 교정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의 성사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할 것임.
- 둘째, 기소중지, 양형에서의 참작, 가석방에서의 고려 등 다양한 단계에서 회복되는 만큼 다양한 법적 효력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밀행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공동체의 참여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공동체 구성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신설되어야할 것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형사조정위원의 비밀유지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 셋째,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와 가해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할 경우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임. 이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가 중점이 되어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 성공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음. 현재에도 형사합의를 통해서 감형의 효과를 노리는 가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음.
- 다섯째,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화해권고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적용이 가능할 것임.
- 여섯째,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

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패널리 서로의 비밀을 엄수한다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심리적 치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임.

❖ 기대 효과

-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으로 가족집단협의 모델 도입, 참여공동체 구성원의 비밀유지 의무저항 신설, 해바라기아동센터나 성폭력상담소를 주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 운영.
- 피·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회복적 사법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의,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서 화해권고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 적용, 피·가해 아동·청소년이 동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심리적 치유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최인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04-1(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속적인 주거 및 여가 환경의 개선은 삶의 만족도를 높였고, 각종 질환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해환경과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결과

- 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부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청소년 8,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영역은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및 지역사회 영역 등 크게 4개의 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세부영역과 세부영역별 문항을 구성하였음.
 - 주요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이나 시도, 스트레스 등 부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낙관주의 등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음. 게임중독, 비행 등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고,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각 세부요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음. 2011년과의 비교결과를 보면, 소폭이지만 우울, 불안, 게임중독, 스트레스 등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낮아졌고,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 가족관계의 질, 지역사회 지원 및 상호작용, 학교생활 등 전반적으로 적응적 심리요인의 평균점수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개인 내 적응적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지원의 경우 앞선 결과와 달리 2011년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문

- 현행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현황, 목표, 법적 근거, 조직, 사업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또한 미국, 호주 및 영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FGI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수요를 분석하였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또한 건강향상, 건강위험요인감소, 질병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등의 차원에서 핵심 사안을 도출하였음.

- 한편, 전문가, 교사, 공무원 등 정신건강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다양한 경로와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이상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 차원,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개선 방안들에 대해 제안하였음.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부문

- 국내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수운영사례에 대해 지역규모별(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로 정신보건센터, Wee 센터, CYS-Net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우수운영사례를 취합하였고, 각 사례의 사례관리 내용과 지역자원 연계 내용 및 활용 결과(성과 및 결과)를 소개하였음.

- 국외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관련 우수사례, 예컨대 약물남용으로부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의 회복지향 돌봄체계 지침(ROSC)과 통합적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CMHI)를 소개하였고, 본 연구의 연계모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FGI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처별 문제점 및 기관별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 모형을 개발하였음. 예컨대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1차 안전망과 여러 지역기관을 연계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Wee 프로젝트, CYS-Net 모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Wee 프로젝트와 CYS-Net과의 연계모형을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개입을 위한 모형을 소개하고, 청소년보호시설, 민간자원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제시하였음.

정책제안 1

중앙정부 단위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 가칭) 국가아동·청소년정신건강위원회 설치

❖ 제안 내용

- 기존의 부처 중심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체계에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부처 간 협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지정되어 사업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정책조정회의’와 같은 ‘국가단위 아동·청소년정신건강위원회’가 설치를 제안함.

❖ 기대 효과

- 어느 한 부처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다부처간의 협력과 더불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정책제안 2

정부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도모

❖ 제안 내용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간의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해줄 수 있는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하는 조직이 부재한 것이 현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를 책임지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의 규모에 따른 지원모형이 개발되어 적용,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게 시행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정부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간의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헤드쿼터(headquarter) 역할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3

숙련되고 교육받은 전문가 확보 및 활용

❖ 제안 내용

- 학교 교사, 아동·청소년의 부모(혹은 보호자), 시설의 보육교사(지역아동센터의 돌봄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보강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증진에서 치료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모두 포괄 되어있기에 숙련되고 교육받은 전문가 확보 및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증진을 위한 개입 및, 다음 단계 서비스로 연계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음.

정책제안 4

근거중심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안 내용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정신건강관리제도에서 단순히 선별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미국의 Teen Screen Program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예방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미국의 Teen Screen Program에서도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 검사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음.

❖ 기대 효과

-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는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이외에 다양한 예방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음.

정책제안 5

정신건강교육 실시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역량 강화

❖ 제안 내용

-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어느 선까지 스스로 조절해야하며, 어느 선부터는 전문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정신건강교육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경우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에 기여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정책제안 6

정신건강 홍보와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제안 내용

- 학교 가정통신문의 활용, 학부모간담회,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관련 기관(정신보건센터,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전화안내, 민간기관 홍보, 방송홍보, 개별방문 홍보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 인식의 변화를 도모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 기대 효과

- 서비스가 필요하면서도 서비스 정보 이용이나 접근이 취약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저변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정신건강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7

교육현장 중심의 Wee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에 기반의 CYS-Net간의 상호공조 강화

❖ 제안 내용

- 정신건강상 위기 수준에 따른 효율적 개입을 위하여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망으로서의 Wee 프로젝트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로서의 CYS-Net이 상호공조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현재 두 가지 사업의 운영방식이나 역할에 있어서 차별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대 효과

- Wee 프로젝트의 경우에 심리평가 실시 및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호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상담(대인관계, 학업, 진로, 인터넷 중독 등)과 특별교육 프로그램 참가(정신건강, 특별교육 등),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교 위기 조정, 외부기관 의뢰(대외 연계 업무)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CYS-Net의 경우에는 Wee 프로젝트에서 제공될 수 없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 등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규정하여, 상호 차별화된 지원방식과 더불어 상호공조 방안을 제시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음.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60-7(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개년 연구로 기획되었으며, 1차 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입양 경험과 자녀양육 및 자립상황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이슈 및 정책 요구를 도출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두 번째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임신·출산의 배경과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단계별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주요결과

1) 청소년의 임신·출산 배경

-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배경으로는 취약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상황, 낮은 피임실천률이 지목됨. 낙태 및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양육과 학업 및 근로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보다 취약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례가 발견됨.

2) 임신·출산·입양 경험

-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의 재임신과 한부모가 되는 과정이 반복됨. 임신 경험자 중 89.1%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며, 피임실천율은 5.0%, 낙태 경험 18.2%(2회 10.8%, 3회 3.6% 포함),

임신 기간 중 음주나 흡연 경험 21%,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진료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11.8%에 달함. 출산 경험은 1회가 94.1%로 가장 많았고, 입양 경험 및 계획이 있는 경우는 33.2%로 경제적 이유(38.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입양을 보낸 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한 경우는 10명 중 7명에 달하였으나 이들 중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우는 14.2%에 불과함.

3) 자녀양육 및 자립 환경

- 본 조사 표본에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가 97.7%로 가장 많고 2명은 2.3%임. 자녀 연령은 2세 이하가 72.7%로 가장 많고, 3~5세가 27%임. 비양육부모(父)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29.5%)가 가장 많고, 19세 미만인 경우 46.3%에 달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87%로 가장 많고,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30.6%에 불과함. 특히 전체 응답자의 72.6%는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상황이 여자 청소년에게 임신과 같은 위기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함. 임신 및 출산 이후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경험은 24.7%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 약 88만원으로 나타남. 근로소득을 포함한 양육 청소년 한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68.02만원으로 양육과 생계 유지에 취약한 수준임.

4)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여부

- 출산 지원, 양육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 생활 지원제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편차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서비스 이용 및 수혜율에 격차가 발생함.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이돌보미,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 수혜율은 36~60% 정도에 불과하여 제도 홍보와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함.

5)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국가 비교(세부보고서)

- OECD 주요국의 한부모 지원정책은 법적인 혼인 여부, 부모의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됨.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및 사실혼이나 혼인신고가 된 경우 한부모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최저생계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OECD 주요국의 한부모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임신중절과 피임에 대한 정책적·문화적 용인도, 빈곤과 사회통합성 정도에 따라 국가별 대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6)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세부보고서)

- 학교 성교육이 실제 성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51.1%), 교육 이수 후 성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응답(38.3%)이 저조하여 보건교육 내 성교육 시수 확대와,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이 요구됨. 특히 젠더역할과 남학생에 대한 양육책임성 교육 등 성별분리 성교육 도입이 요구됨. 사전 및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하여 소비자인 청소년의 접근성,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입장을 감안한 재논의가 요구됨.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신상태, 인공임신중절 후, 출산 후, 입양 후, 양육기간 등 단계별 지원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7)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세부보고서)

-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은 생계 22개, 교육·의료 각각 16개, 자활 13개 등 약 111개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약 119개이며, 지자체별로 편차가 발생함.

정책제안 1

취약·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아웃리치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 및 지원해야 함.
- 둘째, 한 해 평균 7만 여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소년원, 보호관찰소, 분류심사원 등 위기청소년 대상 시설 및 기관 등의 학교 밖 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현재 사후(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응급상황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논의가 요구됨.

- 넷째,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을 도입하고 한부모에게는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급여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및 가출 이후 임신, 출산의 경로를 밟고 있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기여함.
-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여건 개선

정책제안 2

학교 성교육 시수보장 및 맞춤형 성교육 실시

❖ 제안 내용

- 첫째,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되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택교과로 지정되어 있어 채택 비율을 확대해야 함.
- 둘째, 성교육은 1차적으로 보건교과 내에서 학교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맞춤형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성행동은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바람직한 피임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율을 제고하고 피임실천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있다는 성평등 피임교육을 강화해야 함.

❖ 기대 효과

-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남·녀 모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임실천율을 제고하여 청소년기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에 기여함.

정책제안 3

양육비 지급 책임이행 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률 개선을 위한 법제 및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둘째, 부양의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등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실질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본 연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상대 남성 75%가 양육비 지불능력이 없는 청소년으로 나타나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함.

❖ 기대 효과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청소년 한부모 및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추가 양육비 확보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함.

정책제안 4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및 양육지원 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기존 ‘고운맘카드’를 확대 운영하거나 아동 의료비 지원 재신설, 아이돌보미 확대 등 양육지원을 강화함.
-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부모지원정책의 다각화가 요구됨.
- 셋째, 자립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인지율과 수혜율을 높이고, 전반적으로 보육 여건을 개선하여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
- 넷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 세대가 200여 세대에 불과하여 10대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증설 등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함.

❖ 기대 효과

- 우리사회의 양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 미혼모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투자는 기대편익이 높고 장래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소하는데 기여함.

정책제안 5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및 부모권 보장

❖ 제안 내용

- 첫째,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임신·출산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절차 마련이 요구됨.
- 둘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비 지원의 경우,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경우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와 학습권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성인기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함.

통계·기초 분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8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 안선영	9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임희진	9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III · 이경상	106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I (협동) · 이종원	1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4-6(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5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다룬 여러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화세대인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를 다룬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이용시간 등 소셜미디어 이용행태 뿐 아니라 사회자본, 정치참여, 사이버불링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소셜미디어이용정도나 이용동기에 따라 정치참여나 사회자본의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경험적으로 입증함.

❖ 주요결과

1)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

-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지 살펴본 결과, 8가지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전체 응답자의 75.0%가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음. 카카오톡과 더불어 페이스북과 유튜브, 미니홈피, 블로그의 이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페이스북의 경우는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3.4%에 달해 페이스북이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된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정보/교류나 즐거움/추억공유 등 관계지향성에 있음이 나타났음. 또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나 목적 역시 “소통과 교류”라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또래문화를 중시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질적 연구결과 90%의 응답자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컴퓨터중심의 삶이 스마트폰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청소년들의 관계망을 조사한 결과 형식적 관계망(등록된 친구의 수)은 수 백 명에 이르는데 반해 실질적 관계망(실제 소통하는 친구의 수)은 수십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질적 네트워크보다는 동질적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시사해줌.

2)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어난 긍정적 변화로는 정보획득, 스트레스해소, 친한 친구와의 유대강화,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증진,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 활성화 등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계망이 확충되고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나아가 소외나 자살충동 그리고 폭력문제 등 청소년들의 개인적 문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어느 정도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이러한 관계망이 지자체의 다양한 청소년기관들과 연결될 수 있을 때 청소년문제의 해결에 관한 보다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됨.
- 소셜미디어는 또한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도 함. 설문조사결과 서명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36%에 달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부를 한 적이 있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비율도 각각 16.6%, 9.2% 였음. 이같은 수치는 오프라인 참여(서명 57.6%, 기부 47.1%, 봉사활동 67.3%)에 비해 많이 낮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졌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함. 트위터의 경우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트위터가 중요한 정치참여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본 조사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응답자의 45.5%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놀린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10명 중 3명이었음. 또한 10명 중 2명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생님의 험담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도 45%에 달함. 절반이 넘는 청소년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괴담이 많이 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이버따돌림이 성행하고 있음. 면접대상자의 15%정도는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장난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4) 국내외 소셜미디어 관련 법제도 및 정책

- 국내의 경우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보호장치와 미디어교육이 아직까지 체계화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포함된 바 있음.
- 미국의 경우 학교와 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 연합체는 인터넷상 어린이 보호법(CIPA)이 요구하는 '인터넷 안전정책(Internet safety policy)'에 따라, 미성년자 즉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을 반드시 모니터(monitored)하고,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와 대화방을 포함한 온라인상에서의 알맞은 행동규범과 가상공간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cyberbullying)에 대한 인지 및 대응방법을 반드시 교육하며 그 교육실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정책제안 1

소셜미디어리터러시 증진

❖ 제안 내용

-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결된 온라인 네트워크는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임. 따라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때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활용은 촉진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리터러시는 증진됨.
- 소셜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유익하고 건전한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와 문화를 알리기도 하고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함. 또한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 가운데 일부를 기부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함.

- 이러한 기부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게 됨.

❖ 기대 효과

-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부 등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기능 인지

정책제안 2

사이버불링대책마련

❖ 제안 내용

-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후속대책 및 부모교육 등이 미흡한 실정임.
- 미국의 사이버따돌림연구센터는 사이버따돌림에 대응하는 10가지 팁을 제시하면서 청소년 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경찰을 대상으로 사이버따돌림근절방안 및 대응요령을 교육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사회도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증거자료를 어떻게 모아놓아야 하는지, 피해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교육을 학부모,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따돌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뿐 아니라 사이버따돌림을 당했을 경우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매우 절실함.
-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이버불링의 유형이나 원인 등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함.

❖ 기대 효과

-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 환기
-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 강화를 통해 사이버불링 사전 차단

정책제안 3

소셜미디어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제안 내용

-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SNS 중독, 과다사용으로 인한 피로감, 수업방해 등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무분별한 소셜미디어 이용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셜미디어 이용의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아래 예 참조).
 - SNS에 올린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유출될 경우 피해가 심각한 정보는 올리지 말자.
 - SNS는 개인들 간의 사적인 연결망인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임을 명심하자.
 - 수업시간에는 SNS 이용을 하지 말자.
 - SNS를 통해 글을 올리기 전 한 번 더 자신이 쓸 글이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생각 한 후 신중히 글을 쓰자.
 -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말자.

❖ 기대 효과

- 소셜미디어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건전한 소셜미디어활용 촉진
- 소셜미디어이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소셜미디어이용의 문제점 환기

정책제안 4

미디어교육법제화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제안 내용

-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등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실은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음. 미디어교육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의 법제화가 시급함.
- 창의적 체험활동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율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1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는 제도임. 2013년부터는 초, 중, 고 모든 학년에게 확대 적용됨. 미디어교육이 중요한 만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중 하나로 미디어활동을 넣는 것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미디어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법적 토대 구축
-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미디어활동을 중요한 활동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미디어교육 및 활동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346-0(93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07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최근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한국청소년들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우리 사회가 상정하는 바람직한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기대 범위에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벗어난다는 뜻인 동시에 다른 사회 청소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함.
- 한국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시간의 변화나 하위 집단 별 양상을 읽을 수 있는 국내 데이터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서 외국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연구는 청소년 생활실태에 대한 국제비교조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해외연구협력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로준비’를 2012년 비교연구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청소년들의 진로준비 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결과

1) 진로·진학고민

- 한국과 일본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진로·진학문제’였으며, 중국과 미국청소년의 경우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으로 나타남.
- 한국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 4년제 대학 재학이상의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일 수록 ‘진로·진학문제’에 대해 고민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 학교와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 진로지도 유형 중 고교 재학 시 한국청소년은 진로관련 검사를 한 비율이 가장 높는데 비해, 중국과 미국청소년은 학교 및 학과 안내, 일본청소년은 진로상담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는 한국청소년이 중국·미국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한·중·미 청소년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경영/관리직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일 때, 가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 및 성공요인 인식

- 한국청소년이 직업생활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능력’과 ‘근면함과 성실성’이었고, ‘가정배경’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임.
- 직업생활의 성공요인으로 한·일청소년은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중국청소년은 ‘인맥’, 미국청소년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
- 한국청소년은 직업생활에 관한 가치의 5가지 범주 중 ‘내적보상’과 ‘환경적 보상’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외적 보상’, ‘사회적보상’, ‘자율·창조적 보상’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남.

4) 진로·직업태도

- 진로·직업 태도에 있어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미래 진로에 대한 준비에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진로 결정성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 남자청소년, 그리고 부·모학력 및 직업, 경제수준이 높을 때 더 높았음.
- 한국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 그리고 학업성적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을 때 직업세계의 성공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낮게 나타남.

- 진로에 대한 준비성은 한국·일본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 한·중·일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이 더 높았음. 또한 한·일·미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진로·직업선택 시 타인에 의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교 재학 시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직업체험'을 경험한 청소년은 향후 진로·직업선택의 결정성이 더 높았고,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진로지도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세계에서 성공하거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확신성이 더 낮았음.
-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 정도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관련 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진로·직업 태도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직업 역량

- 한국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이나 책, 동영상, TV프로그램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담 받거나 관심 있는 직종의 종사자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교육수준과 학업성적,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재학 시 다양한 진로지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높았음.
-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학교 진로지도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음.
- 가정에서의 진로와 관련한 대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음.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진로·직업 역량 중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평균값이 '자기이해'와 '진로·직업 지식' 보다 높았으며, 4개국 청소년 모두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직업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지도 역량 중 '진로·직업 지식'에 있어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지도 경험(진로관련 강연, 학교 학과 안내,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을 한 청소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청소년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정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제감은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

6) 아르바이트와 취업관련 경험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개국 중 한국청소년이 가장 낮았으며, 아르바이트 주요 이유는 한국·일본청소년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서’, 중국청소년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미국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학교 재학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진로·직업태도 중 준비성과 독립성에서, 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직업 역량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였음.
- 한국청소년 중 구직 및 취업 경험이있는 청소년은 32.6%로, 미국청소년70.3%, 중국청소년 63%, 일본청소년40.2%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청소년의 경우 구직 및 취업 시 어려움을 겪은 이유에 대해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한·중·일·미 청소년 모두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학력, 기술, 자격이 부족하여’ 구직 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구직 시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경우 한·중·일 청소년은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미국청소년은 ‘적당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한국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 학업성적이 중·하위권인 청소년, 경제수준이 낮은 편인 청소년이 ‘수준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도 일단 취업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정책제안 1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 제안 내용

- 비교 대상 4개국 모두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의 수준이 낮고, 진로준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삶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전망을 회복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특화된 진로지도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대다수의 한국청소년들이 일부 전문직을 진로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의미있는 진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비합리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갖기 쉬움.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지도를 통해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음.

정책제안 2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강화

❖ 제안 내용

- 저소득층 가정 보호자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준비에 관한 경제적, 정서적 지지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하거나 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진로 선택에 있어 건전한 역할모델로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함.
-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진로나 직업 분야의 직업인을 멘토로 연결하는 방안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진로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

❖ 기대 효과

- 저소득층 가정의 미흡한 자녀 진로지도 기능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이동을 촉진하는 기제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음.

정책제안 3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강화

❖ 제안 내용

- 가정에서 부모와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는 정도는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학교의 진로교육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자녀 진로지도에 있어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 관련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부모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적과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동일시하는 등 진로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합리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부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529-7(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1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음.
-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검토·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하였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정리하였음.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음.

❖ 주요결과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참여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동·청소년의 참여율 저조는 참여와 관련된 정보 부족, 아동·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만연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 홍보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각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2)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됨.

3)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

-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10명 중 1~2명이 거의 매일 방과후에 보호자없이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보호자 부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보육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요구됨.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공교육 및 사교육을 통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과도한 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또한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및 지역의 아동·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이 요구됨. 아동·청소년의 친화적 인권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및 인권조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도 39.4%에 그침.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인 인권정보 제공 및 인권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정책제안 1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의 확대 및 개선

❖ 제안 내용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선발하는 방식은 추천 또는 모집이나, 실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보 부족으로 일부의 청소년만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각계각층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직은 거주지, 성적, 경제적 계층 등에 따라 배분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이렇게 선발된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들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소년 유해매체의 기준을 정하고 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참여기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도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유해매체 등의 심의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2

청소년증 제도 활성화

❖ 제안 내용

- 우리나라의 청소년증 제도는 청소년증이 학생과 비학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통합한 청소년카드를 개발하고, 연령범위를 청소년의 법적 기준 연령인 만24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또한 정부 부처간 연계와 다양한 업체의 협조를 유도하여 청소년증의 사용범위를 문구 구입, 도서, 음반 구입 및 대여 등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청소년증 제도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으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 이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한다면 여가 및 문화활동이 저조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청소년의 여가 문화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학교 이탈이나 중도포기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책제안 3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 확충

❖ 제안 내용

-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약 5%, 유치원의 약 50% 만이 국·공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임. 이에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취업모 자녀들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확충이 필요함.

❖ 기대 효과

- 보육 및 교육시설의 국·공립화는 사교육 시장의 감소를 불러오는 효과를 보일 것임. 실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그 종류와 비용 면에서 거대 기업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시설 외에 시설, 프로그램의 질,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자녀를 마땅히 보낼 곳이 없기 때문일 수 있음. 또한 보육 및 교육시설의 국·공립화를 통해 보육료 및 교육비의 감소와 양질의 프로그램 및 교사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정책제안 4

학업중단 아동·청소년의 관리체계 마련

❖ 제안 내용

-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학업중단의 이유가 다양한 만큼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맞춤형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대안학교 등의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수혜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시스템은 특히 대안교육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교 이외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무분별한 조기유학으로 오는 폐해를 줄이고 이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또한 학교 등에 소속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취업 및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반감 및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일탈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5

단위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 제안 내용

- 현행 전문상담교사는 지역단위의 순회교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단위학교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음. 상담이라는 것은 1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여러 회기동안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 형성, 심리적인 문제 파악 및 해결, 실생활 적용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각 단위학교마다 1명 이상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 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범부처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 효과

-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왕따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이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이들의 건강한 생활 및 발달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정책제안 6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옹호기구 마련

❖ 제안 내용

-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아동·청소년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 내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의 계발을 지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인권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므로 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가 중앙 및 지역단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옹호기구 마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동시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것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598-3(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4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급변하고 다양화되는 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과업을 달성하며 성인기까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나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미래의 역량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종단적 패널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에서는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청소년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7년동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과정을 종단의 축으로 각 시기의 실태를 횡단의 축으로 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시간의 흐름속에서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3차년도 연구사업인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에서는 (1)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전년도말에 조사된 2차년도 조사결과를 편칭, 데이터 클리닝, 가중치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통계자료로 구축하고, (2)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1~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리서치브리프,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콜로키움, 데이터분석방법론세미나,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하며, (3) 추적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패널표본으로 구축된 청소년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2차 추적조사 실시에 이어 3차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결과

1) 1~2차년도 데이터 구축

- 표본유지율 : 전년도인 2011년 2차년도 조사결과, 초1 패널의 경우, 청소년 96.7%, 보호자 96.0%, 초4 패널의 경우, 청소년 95.2%, 보호자 94.2%, 중1 패널의 경우, 청소년 97.0%, 보호자 94.4%의 표본유지율을 나타내었음.
- 데이터클리닝 : 조사완료이후 편칭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비표집오차를 줄여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클리닝을 실시하였음.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모두 편칭오류 검토, 논리적 오류 검토, 설문의도를 잘못 파악한 응답 검토, 개인정보보호 검토 등의 순으로 7월까지의 횡단면 검사를 12월까지의 종단면 검사를 실시하였음.
- 가중치 부여 : 횡단면 검사 및 종단면 검사를 거쳐 최종 클리닝이 완료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Cross-sectional Weights)와 종단면 가중치(Longitudinal Weights)를 부여하였음.
- 조사안내자료의 작성 : 데이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저가이드(조사목적, 연구설계, 조사대상, 조사내용, 자료수집방법, 조사결과 등 조사안내) 및 코드북(데이터 구조안내) 등 조사안내자료를 작성하였음.
- 최종데이터 제작·배포 : SPSS, SAS, STATA 등 세 가지 파일로 최종데이터를 제작하여 조사안내자료와 함께 연말에 본원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학계에 제공하였음.

2) 1~2차년도 데이터 활용

- 콜로키움 개최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활용과 관련, 패널조사연구사업의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2012년 3월 21일(수)에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1차 콜로키움을 실시하고, 2012년 4월 4일(수)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주제로 2차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음.
- 데이터분석방법론세미나 개최 : 유저들의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활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7월 5일(목) 관련 학계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층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주제로 패널데이터분석방법론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개최 : 11월 16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한가정학회·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한국가정관리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정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소년정책학회 · 한국심리학회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한국 아동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제2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학술대회(대학원생 논문공모 포함)를 개최하였음. 제2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는 11주제(건강, 학교적응, 비행 · 발달, 생활 · 팬덤 활동 · 휴대폰 사용, 청소년 활동, 문제행동 · 학교폭력, 학교적응 · 학업성취, 정서 · 발달, 다문화 · 사회적응 · 공동체의식, 학업성취 · 삶의 만족도,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에 걸쳐 총 3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

- 리서치브리프 발간 : 10월~12월에 연구진에서 아동 · 청소년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1)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실태, (2)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시간 실태, (3) 청소년 학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중학교 2학년의 컴퓨터 활용실태, (4)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의 매체이용 실태의 주제로 4편의 리서치브리프를 작성·발간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음.
-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 12월말에 연구진에서 아동 · 청소년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3)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4권의 데이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활용논문의 양산 : 12월말에 최종 데이터클리닝이 완료된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1~2차년도 데이터를 본원 데이터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유저들의 논문작성에 자유로이 활용케 하였음.

3) 3차년도 추적조사

- 3차년도 설문지의 작성 : 문헌연구, 연구진 문항검토, 교수교사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 예비조사, 국립국어원 검토, 통계청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3차년도 설문지를 확정하였음.
- 3차년도 추적조사 준비 : 표본관리, 자료수집방법 검토, 면접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3차년도 추적조사를 준비함.
- 3차년도 추적조사 : 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1차년도(2010년) 확정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추적조사를 9월 말~11월 말에 실시하였음.

정책제안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12-R14-1/데이터분석보고서1)

❖ 제안 내용

- 첫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자아의 성찰적 능력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둘째, 일반 청소년 대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셋째, 단체·시설 담당자 및 교사 대상의 프로그램 교육 실시
- 넷째, 비행 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인지력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기대 효과

-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 비행 청소년들의 잘못된 사회적 인지력 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정책제안 2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12-R14-2/데이터 분석보고서2)

❖ 제안 내용

- 첫째, 국가수준에서의 청소년 뉴미디어교육 전문시설 지정 및 운영
- 둘째, 국가수준에서의 뉴미디어 교육 및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 셋째, 국가수준에서의 건전한 게임방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재정비
- 넷째, 지역수준에서의 뉴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다섯째, 지역수준에서의 뉴미디어 활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섯째, 지역수준에서의 뉴미디어 교육 또는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기대 효과

-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의 뉴미디어 교육 역할분담을 통한 뉴미디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올바른 뉴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정책제안 3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12-R14-3/데이터분석보고서3)

❖ 제안 내용

- 첫째, 미디어교육을 반영한 입시제도 개선과 미디어 교육 인력양성
- 둘째, 국립 온라인게임중독 예방센터 설립
- 셋째, 온라인 게임 및 영상물 심의·규제 강화

❖ 기대 효과

- 건강한 미디어 환경조성을 통한 청소년 미디어 문화배양효과 제고
- 건강한 미디어 문화배양효과 제고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정책제안 4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12-R14-4/데이터분석보고서4)

❖ 제안 내용

- 첫째, 아동·청소년방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정책방안 마련 : 기존 아동·청소년보호지원 시설 업무영역에 아동방임 관련 예방 발굴 업무 추가, 국가차원의 지원사실 홍보 확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 공동 아동·청소년방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전국부모양육실태조사 실시 등
- 둘째, 아버지·어머니 부모교육프로그램 및 지원기관의 확대,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프로그램 확대 보급 및 관련예산 일부지원, 사회복지관·청소년수련관 등에서의 부모교육활성화 방안 모색, 생애주기를 고려한 국가차원의 부모교육매뉴얼 개발·무상보급 등
-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 전개 :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대상 시상 및 TV 공익광고 기획·송신,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함양방안 연구 발주, 정책방안 도출 등

- 넷째,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 물적자본 지원 위주에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 지원으로 :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서비스 인적자본, 사회자본 지원목록 및 지원방식 매뉴얼 개발,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및 관련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 운영 등

❖ 기대 효과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 증대를 통한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제고
-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제고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I

연구 요약

- ❖ 책임연구원 :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ISBN : 978-89-7816-656-0(94330), 자체 보고서 번호 : 12-R16
- ❖ 발행처(연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 연구목적

-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세계사에 유례 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하였음. 그 결과 90년대 후반 OECD, G20 가입 등을 통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과정에서 정보산업의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의 양극화 문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의 대두,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의 진전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담당할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역량과 자질의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1년에 시작된 ICCS(국제 시민성·시민교육 연구) 조사결과 분석의 2차년도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역량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주요결과

1) 연령별 분석

- 시민역량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응답경향은 연령별로 주목할만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민적 지식은 증가하지만 정치적·시민적 자아효능감에는 변화가 없었고, 다른 민족/이주민의 평등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이에 따라, 지식의 영역을 제외한 시민성·시민역량의 측면에서 가령(ageing)은 일관되게 청소년들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성별 분석

- 성별 응답결과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연히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지하고, 남자 못지 않게 여자도 정치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장래의 정치활동 참여의사 등의 측면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매우 현격하였음.
- 양성평등관은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일상적인 관심과 태도, 행동의 차원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임을 알 수 있음.

3) 교급별 분석

- 학교 관련 변인에서는 전문고 학생과 비전문고(인문고, 중학생) 학생간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두 집단간의 상이한 응답경향이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전문고 학생들의 시민적 지식과 정치적·시민적 효능감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았고, 민주적 가치, 시민적 역할, 사회평등 의식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교 안팎에서의 시민적 참여의 경험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4) 가족배경별 분석

- 가족관련 배경변인의 응답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계층화 현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음.

- 부모의 학력은 시민적 태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은 시민적 가치인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음.
- 부모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상위권인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시민적 지식, 정치적·시민적 효능감, 사회평등의식, 시민적 참여, 장래의 행동의사 등의 측면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

정책제안 1

학생 권익기구로서의 학생자치활동 기능 강화

❖ 제안 내용

-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음.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신분적 특성상 법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면, 학생대표가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것은 학교운영의 공동주체로서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음.
- 둘째, 교칙 제·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범위도 확대되어야 함. 교칙 개정의 학생참여는 현행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도 규정된 사항이지만,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함. 또한 교칙 제·개정시 공개적인 설명회나 토론,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응답은 초·중·고교생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음.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의 참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법령에 교칙 제·개정시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정리하여 매뉴얼의 형태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셋째,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는 먼저 학급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함.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급의 토론 분위기가 개방적일수록 청소년들의 시민적 참여활동 경험이 높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할에 못미치는 것은 현행 학급 운영의 경직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학급이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개방적·민주적인 학급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현재 학급회의가 HR 등의 명칭으로 교과과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러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일반 교과수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실정임. 학급회의가 학교에서 교과시간 중에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고려할 때, 학급회의의 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기대 효과

- 청소년들이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시민사회의 원리와 운영 메카니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학과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시민적·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

정책제안 2

청소년 정책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

❖ 제안 내용

- 첫째, 현행 “청소년특별회의”의 명칭을 “청소년의회”로 변경하고 참여 인원, 조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별회의라는 명칭은 특별한 정책사안과 관련된 제한된 규모의 한시적 기구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일부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의회” “청소년회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 소수이고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이들 조직·기구의 운영진 및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특별회의와의 통·폐합을 통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명칭의 변경과 아울러 행정부처와 국회가 분담하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현재는 특별회의의 운영의 전 과정을 행정부처(여성가족부)가 전담하고 있어, 의제나 정책과제의 선정이 주로 행정적인 사항에 편중되어 청소년과 관련한 입법과정의 참여는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임. 국회가 공동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의원이나 행정부처에 대하여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대표기구로서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특별회의)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특별회의가 1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고 존재감이 미약한 것은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의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을 등한시해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일제고사나 야간자율학습 등 교육현장의 문제에서 청소년자살,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 특별회의가 “청소년의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청소년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안에 대한 활발한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일된 의견을 도출해 내고 매스컴 등을 활용하여 이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로서 청소년의회 포털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의회가 전체 청소년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그리고 그 매체로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청소년의회는 주요 논의안건이나 결정사항, 회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온라인 게시판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청소년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는 한편, 청소년 대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임. 현재 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청소년참여 포털”)가 운영되고 있지만, 콘텐츠의 부족, 관리자 중심의 메뉴 구성, 게시판 및 의견조사 기능의 미비 등으로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청소년의회 내에 포털 사이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분과를 두고 수요자 중심으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운영을 전담케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기대 효과

- 현재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 청소년특별회의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함과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정책제안 3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학생자치법정의 활용

❖ 제안 내용

- 첫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목적은 단순한 법의식 교육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따라서 사회교과의 일환으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즉,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 등 개최일자를 정례화하고, 사전에 안전내용을 고지하고 신청을 받아 재판과정에 참여할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 모두에게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둘째,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내용이 실제 학생들의 권익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경미한 교칙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 처벌”이라는 일관된 패턴으로 재판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획일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두발·복장 자율화 문제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등이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개별 학교에 한정된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내 인적 자원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지역 단위별로 학생자치법정 특성화 청소년시설을 지정하고 법률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변호사 등 법조인, 로스쿨 재학생 등)을 자원봉사자 또는 명예직 지도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역사회내 학교들이 이와 같은 청소년시설과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기대 효과

- 학생자치법정은 법무부에서 미국의 청소년법정(teen court)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고안한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300여개 시범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학생자치법정의 내실화,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더불어, 사법제도의 측면에서 시민사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원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임.

부 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5년간 발간물 목록	1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151

2012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12-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12-R14-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조홍식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이선영 (자체번호 12-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최보영·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김준홍 (자체번호 12-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김준홍·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II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 (자체번호 12-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시과제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김호순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김호순

12-R19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김지연·최수미·이순래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장근영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김희진·김준홍·김정희·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와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해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의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또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리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중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외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2011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1-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 평가편람 / 김형주·임지연·한도희·김영애·김혁진·김인규
- 11-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Ⅰ /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 11-R03 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맹영임·조혜영·김민·김영호
- 11-R04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이유진·김영지·김진호·이용교·조아미
- 11-R04-1 지역사회중심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공부방 현황보고서/ 이유진·김영지
- 11-R05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Ⅰ / 성윤숙·김영한
- 11-R05-1 가족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Ⅱ : 한부모·조손가정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영한
- 11-R06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체계 구축 연구 / 김기현·김창환
- 11-R0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1-R0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황진구·이혜연·유성렬·박은미
- 11-R09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김경준·오해섭
- 11-R09-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김경준·오해섭
- 11-R09-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측정 / 김경준·오해섭·정익중
- 11-R09-3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오해섭
- 11-R09-4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Ⅱ : 청소년멘토 훈련프로그램 개발 / 김경준·오해섭
- 11-R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사업보고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
- 11-R1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Ⅱ 기초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활동참여 실태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서우석
- 11-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임희진·김현신
- 11-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김현신·강현철
- 11-R12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윤철경·이민희·박선영·박숙경·신인순
- 11-R12-1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참여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 박숙경·김소희·오세정

- 11-R1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창욱·임영식·이인재·박균열·박병기
- 11-R13-1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감수성 / 박균열·홍성훈·서규선·한혜민
- 11-R13-2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판단력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 11-R13-3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동기화 / 박병기·변순용·김국현·손경원
- 11-R13-4 청소년 도덕성 진단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 I : 도덕적 품성화 / 이인재·김남준·김향인·류숙희·윤영돈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총괄보고서 / 안선영·김희진·박현준 (자체번호 11-R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성인기 이행의 성별차이 연구 / 장미혜·정해숙·마경희·김여진 (자체번호 11-R21-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1-03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 취약위계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 은기수·박건·권영인·정수남 (자체번호 11-R21-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모상현·강지현 (자체번호 11-R22-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김미숙·김지은·박정연 (자체번호 11-R22-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2-0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이호근·김영문·정혜주 (자체번호 11-R2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2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 민주시민 역량실태 조사 / 장근영·박수익 (자체번호 11-R23-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33-03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민주시민역량 교육환경 및 효과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1-R23-2)

수시과제

- 11-R14 창업,기업가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한국-핀란드 비교연구 / 안선영·김희진
- 11-R15 한·중·일·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 이경상·임희진·김진숙
- 11-R16 청소년활동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권일남·최창욱
- 11-R17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 / 황옥경·김영지

- 11-R18 소년원생의 출원 후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 이유진 · 조윤오
- 11-R19 저소득층 아동 ·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 이기봉 · 권순용 · 박일혁
- 11-R20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방안 연구 / 김기현 · 맹영임

수탁과제

- 11-R25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 김기현 · 최창욱 · 김형주
- 11-R26 중국인과 한국인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윤철경 · 오해섭
- 11-R27 청소년 동아리활동 인증방안 연구 / 맹영임 · 조남익 · 손의숙
- 11-R28 2011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보고서 / 김영지 · 김경준 · 성윤숙 · 이창호
- 11-R29 2011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29-1 2011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시설별 개별 보고서 :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 황진구 · 김기현 · 모상현
- 11-R30 20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김승경
- 11-R31 장애청소년 대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유명화
- 11-R3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 · 조혜영
- 11-R32-1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 양계민 · 조혜영
- 11-R3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3-1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모델 개발 사례집 / 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 11-R34 학교부적응(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 윤철경 · 최인재 · 김윤나
- 11-R35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안선영 · 최창욱
- 11-R36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 개발 / 이유진 · 김영한 · 김형모
- 11-R37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조혜영 · 양계민 · 김승경
- 11-R3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 11-R39 미래세대 가치관 분석 및 대응방안 / 임희진 · 백혜정
- 11-R40 '공정사회 실현' 고교생 논술대회 / 오해섭
- 11-R41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임희진 · 장근영 · 김혜영 · 황옥경
- 11-R42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 최창욱 · 김영지
- 11-R43 2011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 / 박수익 · 장근영 · 김형주
- 11-R44 수요자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방안 연구 / 김희진 · 이해연 · 황옥경 · 이용교
- 11-R45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및 교재개발 연구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11-R45-1 멘토링 운영 매뉴얼 / 김경준 · 오해섭 · 모상현 · 천정웅 · 김지혜 · 김명화 · 오정아 · 박경현 · 방진희
- 11-R45-2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 오해섭 · 김경준 · 모상현 · 김세광 · 박선영 · 유가예
- 11-R45-3 멘토링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 · 김경준 · 오해섭 · 박정배 · 진은설
- 11-R46 성인 · 청소년 세대 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6-1 청소년 가치관 및 의식수준 조사 / 최인재
- 11-R47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 이유진
- 11-R4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장기종단 효과성연구 II / 장근영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1-S01 Becoming an Adult in South Korea(3/7)
- 11-S02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방안 워크숍(3/18)
- 11-S03 동기이론의 최근 경향(4/6)
- 11-S04 통계조사에서 무응답 문제와 가중치 작성(4/14)
- 11-S05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4/22)
- 11-S06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 도입의 의의와 방안 탐색(4/25)
- 11-S07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4/28)
- 11-S08 2010 고유과제 연구 성과 발표 자료집(5/13)
- 11-S09 Youth's Perception on Entrepreneu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5/12)
- 11-S10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관련 논의의 초점들(5/19)
- 11-S11 아동·청소년 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5/25)
- 11-S12 아동·청소년 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서울시 복지패널조사(6/2)
- 11-S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개념 및 지표체계 정립(5/25)
- 11-S14 사회복지시설인증제 도입방향 및 경과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위한 시사점 모색(5/27)
- 11-S15 방과후 서비스 현황과 종단조사(5/25)
- 11-S16 다문화 종단 연구 패널 연구 방법론 I (6/15)
- 11-S17 해외 평가 동향(6/20)
- 11-S18 청소년공부방 현장실사위원 워크숍(6/20)
- 11-S19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워크숍 II (6/24)
- 11-S20 학교문화선도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6/24)
- 11-S21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 (6/29)
- 11-S22 다문화 종단연구 패널연구 방법론 III (7/11)
-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콜로키움 자료집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7/28)
- 11-S24 보육시설 평가인증 전과정과 현황 : 청소년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사점 모색(8/9)
- 11-S25 2011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2010 데이터분석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8/30)
- 11-S26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워크숍 자료집 : 시범사업 중간발표 및 워크숍(8/18, 19)
- 11-S27 청소년수련관 인증제 도입 방안(9/1)

- 11-S28 청소년문화의 집 인증제 도입 방안(9/2)
- 11-S29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정책 대안 관련 워크숍(9/19,20)
- 11-S30 국내외 청소년 도덕성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현황과 사례(9/9)
- 11-S3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발굴(9/28,29)
- 11-S32 한중 관계의 미래: 한국과 중국 청년의 한중 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할 강화방안 한·중 국제 세미나(9/22)
- 11-S33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9/30)
- 11-S3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10/12)
- 11-S35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0/17)
- 11-S36 학교문화선도학교 워크숍(11/1,2)
- 11-S37 청소년 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정책 세미나(10/26)
- 11-S38 2011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전북발전연구원 공동세미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정책방향(10/27)
- 11-S39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4)
- 11-S4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11/4)
- 11-S4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11/2)
- 11-S42 미래세대 가치관 대응 방안(12/1)
- 11-S43 2011 한·중 청소년 정책 세미나
청소년 우대제도의 현황과 과제 : 청소년 우선개발의 이념과 행동 (12/6)
- 11-S44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개발 성과보고회 및 '12년 시범사업 설명회(12/9)
- 11-S45 멘토링 운영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세미나(12/9)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6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6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63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 · 길은배 · 김 민 · 김진호 · 김혜원 · 문성호 · 박선영 · 설인자 · 오승근 · 윤은중 · 이명옥 · 이은경 · 최순중 · 김영지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 · 고등학생용)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 장근영 · 권해수 · 김민성 · 강영신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 장근영 · 임영식 · 정경은 · 조아미 · 정재천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 N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 장근영 · 권일남 · 김태균 · 김정울 · 김지수 · 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12호 : 창의적 체험 활동(2010년12월)
- NYPI YOUTH REPORT 13호 :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8월)
- NYPI YOUTH REPORT 14호 :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8월)
- NYPI YOUTH REPORT 15호 :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9월)
- NYPI YOUTH REPORT 16호 :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9월)
- NYPI YOUTH REPORT 17호 :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18호 : 방화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10월)
- NYPI YOUTH REPORT 19호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0호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10월)
- NYPI YOUTH REPORT 21호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 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2호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발전방안(11월)
- NYPI YOUTH REPORT 23호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발달권, 참여권(11월)
- NYPI YOUTH REPORT 24호 : 청소년의 가족의식·가정생활 실태조사(11월)
- NYPI YOUTH REPORT 25호 : 해외 청소년시설 평가사례의 정책적 시사점(12월)
- NYPI YOUTH REPORT 26호 : G20 이후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7호 :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복지지원방안(12월)
- NYPI YOUTH REPORT 28호 : 청소년 온라인게임중독 실태와 대응방안(12월)

2010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혜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 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청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상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집 -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윤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혜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Ⅰ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분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수탁 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윤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관·김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Ⅰ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율·김지수·김영희

기타 발간물

-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2009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희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피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중·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수탁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2008년 간행물

기관고유과제

-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 외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 외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 외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 외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 외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 외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 외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체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 외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 외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 외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 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 외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 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 외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외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 외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 외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 외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 외

협동연구과제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 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 외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 외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 : 총괄보고서 / 김기현 외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 외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 외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 외

수 시 과 제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 외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 외

수 탁 과 제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 외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 외
 초등학교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 외
 200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 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 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 외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윤숙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한강독서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외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외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외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외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 외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외

2008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2008 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외
 2008 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외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외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외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윤숙 외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3.28)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5.6)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5.2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Ⅱ 자료집」(7.8)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8.22)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9.2)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9.1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9.19)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9.26)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9.3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9.26)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9.2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10.24)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10.28)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10.17)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10.17)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10.14)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10.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10.17)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10.16)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8)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11.24)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11.28)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12.22)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직 명단 및 연락처

(2013년 3월 현재)

부 서		성 명	직급(직위)	전화(사무실)	이메일 주소
기획 조정 본부	기획조정본부	김기현	연구위원(본부장)	2188-8880	kihuns@nypi.re.kr
	연구기획·대외 협력팀	조혜영	선임연구위원(팀장)	2188-8813	jhy@@nypi.re.kr
배상률		부연구위원	2188-8837	drbai@nypi.re.kr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07	ccwook@nypi.re.kr	
이혜연		선임연구위원	2188-8834	hylee@nypi.re.kr	
김현철		연구위원	2188-8836	heram@nypi.re.kr	
임희진		연구위원	2188-8886	hjljm@nypi.re.kr	
장근영		연구위원	2188-8870	jjanga@nypi.re.kr	
안서영		연구위원	2188-8806	ahn182@nypi.re.kr	
김지경		부연구위원	2188-8875	jkkim@nypi.re.kr	
김희진		부연구위원	2188-8830	heui529@nypi.re.kr	
(배상률)		부연구위원	2188-8837	drbai@nypi.re.kr	
성은모		부연구위원	2188-8883	emsung@nypi.re.kr	
활동·역량 연구실	맹영임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4	yjmaeng@nypi.re.kr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2188-8845	mindhill@nypi.re.kr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2188-8835	eugene@nypi.re.kr	
	김형주	연구위원	2188-8843	andrea@nypi.re.kr	
	백혜정	연구위원	2188-8818	hbaek@nypi.re.kr	
	양계민	연구위원	2188-8831	yangkm@nypi.re.kr	
	이창호	연구위원	2188-8801	ifsc334@nypi.re.kr	
	최인재	연구위원	2188-8876	jae713@nypi.re.kr	
	김지연	연구위원	2188-8868	okness@nypi.re.kr	
	모상현	연구위원	2188-8803	saarmo@nypi.re.kr	
	정안숙	부연구위원	2188-8863	asjeong@nypi.re.kr	
	김승경	부연구위원	2188-8893	skkim0822@nypi.re.kr	
	황여정	부연구위원	2188-8882	hyj@nypi.re.kr	
	보호·복지 연구실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2	yiwon@nypi.re.kr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2188-8832	jun@nypi.re.kr
		박영균	선임연구위원	2188-8824	ykpark@nypi.re.kr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2188-8804	chyoon@nypi.re.kr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2188-8825	lks1428@nypi.re.kr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2188-8805	hwangjku@nypi.re.kr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2188-8841	ohs@nypi.re.kr	
김영지		연구위원	2188-8846	yjkim@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서정아		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임지연		연구위원	2188-8820	ljy522@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서정아		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임지연		연구위원	2188-8820	ljy522@nypi.re.kr	
통계·기초 연구실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실장)	2188-8812	yiwon@nypi.re.kr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2188-8832	jun@nypi.re.kr
	박영균	선임연구위원	2188-8824	ykpark@nypi.re.kr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2188-8804	chyoon@nypi.re.kr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2188-8825	lks1428@nypi.re.kr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2188-8805	hwangjku@nypi.re.kr	
	오해섭	선임연구위원	2188-8841	ohs@nypi.re.kr	
	김영지	연구위원	2188-8846	yjkim@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서정아	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임지연	연구위원	2188-8820	ljy522@nypi.re.kr	
	성윤숙	연구위원	2188-8823	first1004@nypi.re.kr	
	서정아	연구위원	2188-8828	jaseo@nypi.re.kr	
	임지연	연구위원	2188-8820	ljy522@nypi.re.kr	

2012 고유과제 정책제안보고서

인 쇄 2013년 3월 29일

발 행 2013년 3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84